문학석사학위논문

‘치다’와 ‘-치고’에 대한 연구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石慧梅(석혜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치다’와 ‘-치고’에 대한 연구

石慧梅(석혜매)

본고의 목적은 동사 ‘치-’와 조사 ‘-치고’의 문법적인 특성과 그 둘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다. ‘치-’의 문법 특성은 형태·통사 면에서 살펴보았고, ‘-치고’의 문법 특성은 그 문법 범주와 그것이 구성하는 구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기존 사전들의 ‘치-’의 뜻풀이를 종합하면 ‘계산에 넣다’, ‘값을 매기다’, ‘어떤 기준으로 삼다’, ‘인정하거나 가정하다’ 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 이 네 가지 뜻은 서로 관련성을 가진다. 즉, ‘계산에 넣다’, ‘값을 매기다’라는 실제적인 의미가 의미 확장을 통하여 ‘어떤 기준으로 삼다’, ‘인정하거나 가정하다’라는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치-’의 형태·통사적 특성은 그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치-’의 형태적 특성은 ‘치-’와 잘 결합하는 어미와 잘 결합하지 않는 어미를 통하여, ‘치-’의 통사적 특성은 ‘치-’의 논항 구조, 자주 쓰이는 문장 유형 및 관용 표현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치-’의 논항 구조는 의미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동사에 비해 청유문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정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ㄴ/는 셈 치다’, ‘-다손 치더라도’, ‘-은 그렇다 치고’, ‘-은 둘째 치고’ 등의 가정과 관련되는 여러 관용 표현도 있다.

‘-치고’의 문법적 특성을 보기 전에 우선 ‘-치고’의 문법범주를 다시 규명하였다. ‘-치고’는 여러 가지 격을 담당하지 않으며, 명사구 뒤에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보조사가 아니라 격조사이다. 그리고 ‘NP치고’는 문장 성분 중에서 부사어가 되기 때문에 부사격조사라고 판단된다. ‘-치고’의 문법적 특성은 ‘-치고’가 구성하는 두 가지의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구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에서와 같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으로서는 예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를 뜻하는 구문을 형성하는 '-치고$_1$' 구문은 화자의 기대와 어긋남을 드러내므로 일종의 반(反)기대표지라고 볼 수가 있다. 한편 '한국인치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 없다'에서와 같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 중에서 어떤 속성을 가지지 않는 구성원이 없다'를 뜻하는 구문을 형성하는 '-치고$_2$' 구문에서는 그 후행요소가 반드시 '없다'나 '희소하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어야 하므로 '-치고$_2$'는 일종의 부정극어라고 볼 수가 있다.

'치-'의 활용형 '치고'는 문법화 과정을 거쳐 조사 '-치고'가 되었다. 실제적인 의미나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치-'는 모두 '일정한 범주에 넣는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문법화한 '-치고'가 구성하는 두 가지 구문도 '어떤 범주 안의 구성원'에 대해 다루는 것을 보면 '치-'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주요어: 치고, 치다, 조사화, 문법화, 부사격 조사, 반(反)기대 표지, 부정 극어, 관용 표현

학번: 2010-22696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차 례

<한국어초록> ······ i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및 대상 ······ 1
1.2. 선행 연구 ······ 2
1.3. 연구 방법 및 논의의 구성 ······ 3

2. 기본논의 ······ 5
2.1. 문법화 ······ 5
2.2. 반(反)기대 표지 ······ 12
2.3. 부정극어 ······ 13

3. 동사 '치다'의 형태· 통사적 특성 ······ 15
3.1. 형태적 특성 ······ 15
3.2. '치-'의 통사적 특성 ······ 22
3.2.1. '치-'와 문장 유형의 상관관계 ······ 22
3.2.2. '치-'의 논항의 특성 ······ 25
3.2.3. '치-'의 관용표현 ······ 29

4. 조사 '-치고'의 문법범주와 특성 ······ 33
4.1. 기존 사전들의 기술 ······ 33
4.2. '-치고'의 문법범주 ······ 36
4.3. '-치고'의 형태적 특성 ······ 40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4.4. ‘-치고’의 통사적인 특성 45
4.4.1. ‘-치고$_1$’의 통사적 특성 52
4.4.2. ‘-치고$_2$’의 통사적 특성 57

5. 결론 63

참고문헌 65

<中文摘要> 69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본고는 동사 '치-'와 조사 '-치고'의 문법 특성과 그 둘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 '치-'를 본격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대다수가 '생각하다, 여기다, 삼다' 등의 동사를 언급함에 있어서 '치-'를 포함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사 '치-' 뒤에 연결어미 '-고'를 취하여 문법화된 '-치고'는 두 가지 구문에서 쓰이며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고는 동사 '치-'와 문법화된 '-치고'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 다양한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금성판 국어대사전》, 《우리말 큰사전》[1]등의 대사전에서 본고에서 연구될 대상인 '치-'에 대한 뜻풀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ㄱ. 인정하거나 가정하다. (예: 그는 내 작품을 최고로 쳤다; 그래, 내가 잘못한 것으로 치고 더 이상 딴 소리 하지 마라.)
ㄴ. 계산에 넣다. (예: 너까지 인원에 쳐야 모두 열명이다.)
ㄷ. 값을 매기다. (예: 적어도 한 개당 오백원을 쳐야 손해를 안 본다.)
ㄹ.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다. (예: 생명 모질기로 치자면 아마 나보다 더한 사람도 없었을 거요.)

이들 사전의 '치-'의 뜻풀이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네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네 가지 의미는 '치-'의 문법적인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2]

《우리말》을 제외한 다른 대사전[3]에서는 '-치고'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1) 이하에서 이 사전들을 각각 《표준》, 《연세》, 《고려》, 《금성》, 《우리말》로 표시할 예정이다.
2) 이에 대해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3) 4장에서 각 대사전에서 '-치고'에 대한 기술을 자세히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고 기술하고 있다. 하나는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전체가 예외 없이’의 의미이다. ‘－치고’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두 가지 구문을 구성하기 때문에 본고는 ‘－치고’를 둘로 나눌 것이다. 먼저 ‘－치고’는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의 의미를 지닐 때 “겨울날씨치고 따뜻하다.”처럼 ‘어떤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 중에서 예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 구문을 형성한다. 이때의 ‘－치고’는 ‘－치고$_1$’로 표시한다. 이와 달리 ‘－치고’가 “그 전체가 예외 없이”의 의미를 지닐 때는 “한국인치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에서와 같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 중에서 어떤 속성을 가지지 않는 구성원이 없다’와 같은 의미의 구문을 형성한다. 이때의 ‘－치고’는 ‘－치고$_2$’로 표시하기로 한다.

1.2. 선행 연구

지금까지 ‘치－’에 대한 논의는 ‘삼다, 생각하다, 여기다’ 등 동사와 함께 언급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치－’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의미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치－’를 언급한 연구로는 서정수(1996), 변정민(2002), 채숙희(2011) 등이 있다. 서정수(1996)에서는 ‘치－’를 불완전동사[4]로 보고 있으며,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변정민(2002)에서는 ‘치－’가 인지동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였고 채숙희(2011)에서는 ‘치－’를 내재동사[5]라고 하였다.

---

4) 서정수(1996)에서 불완전 동사(incomplete verb)란 필수 부사어(oblicatory adverbials)와 함께 쓰여야 하는 동사들을 말한다. 불완전 타동사로 알려진 “삼다”와 “여기다” 따위의 동사들은 보충 요소를 필요로 한다. 이 보충 요소에 대하여 일부 논의에서는 이를 보어라고 하지만 부사어의 형태를 띠므로 필수 부사어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부류에 포함할 수 있는 동사로는 “여기다, 간주하다, 치다” 따위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선행 부사어가 <명사구+로>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삼다”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a. 친구로/ b. 친구라고} 여긴다/ 간주한다/ 친다.

5) 채숙희(2011:71)에서 내재동사는 인지동사 가운데 피인용문의 직접인용이 불가능한 동사라고 했다.

가. 너 네가 사탕을 좋아한다고 쳐 봐.
나. *너 “나는 사탕을 좋아해.”하고 쳐 봐.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치고’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치고’의 문법범주를 다룬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치고’를 크게 조사로 보았다. 최현배(1946: 878)에서는 ‘-치고’를 치기도움토(算入補助詞)로 보아, 그 대상이 무엇임을 인증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한편 최현배(1983:627)에서는 ‘-치고’를 감목 자리 토(資格格助詞)로 간주하면서 선행하는 명사구를 사실이라고 인정함을 가정한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했다. 임동훈(2004:148)에서는 ‘보고, 더러, 말고, 치고’가 동사의 ‘-어’, ‘-고’ 활용형에서 문법화한 후치사라고 간략하게 언급했다. 최형용(2005), 서태길(2009)에서는 동사 ‘치-’가 연결어미 ‘-고’와 결합하여 문법화가 일어나 보조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서태길(2009)는 ‘-치고’에 대해 자세히 검토한 연구로 이 논의에서는 ‘-치고’를 보조사로 인정하면서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의 의미를 지닌 ‘-치고$_1$’의 선후행어의 특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러나 ‘그 전체가 예외 없이’의 의미를 지닌 ‘-치고$_2$’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한편, ‘-치고’를 조사로 보지 않고 동사 ‘치-’의 활용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채완(1998)에서는 ‘-치고’를 조사로 본다면, 같은 의미로 쓰이는 ‘쳐 놓고’도 조사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 삼았다. 따라서 ‘-치고’는 조사가 아니라 동사 ‘치-’의 활용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용운(2003)에서는 ‘치-’ 뒤에 연결어미 ‘-고’ 뿐만 아니라 ‘-더라도, -면’ 등의 어미도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치고’는 조사로 볼 수 없고 ‘치-’의 활용형으로 봐야 된다고 했다.

1.3. 연구 방법 및 논의의 구성

본고는 ‘21세기 세종 계획’에서 구축한 현대국어 원시말뭉치 5700만 어절에서 검색된 용례들을 비롯하여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었던 용례 및 기존 사전의 예문들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치-’와 결합할 수 있는 어미를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통계적 검증 방법이 이용되었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동사 ‘치-’를 ‘-치고’와 연결시키는 데에 관련되는 문법화 이론, ‘-치고$_1$’에 관한 반(反)기대 이론, 그리고 ‘-치고$_2$’와 관련된 부정극어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3장에서는 동사 ‘치-’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기술할 것이다. ‘치-’의 형태적 특성에 대해서는 ‘치-’가 어미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고, 통사적 특성에서는 ‘치-’의 논항 및 ‘치-’가 문장 유형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에 더하여 ‘-다손 치더라도’, ‘-은 그렇다 치고’, ‘-은 둘째 치고’, ‘-는/ㄴ 셈 치다’와 같은 관용 표현에서 쓰인 ‘치-’에 대해 살필 것이다.

4장에서는 ‘-치고’를 ‘-치고$_1$’과 ‘-치고$_2$’로 나눠서 각각의 형태·통사·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치고’의 형태적인 특성은 ‘-치고’와 보조사 ‘-는, -야, -서’의 결합 양상을 통해서, ‘-치고’의 통사·의미적인 특성은 ‘-치고$_1$’ 구문과 ‘-치고$_2$’ 구문의 선·후행 요소의 특성과 의미 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과제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2. 기본논의

2.1. 문법화

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서 굴절형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Kurłowicz(1975)에서 말한 바 있다. Hopper & Traugott(1993)의 경우는 문법화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문법화 과정에 포함시켜 어휘적인 요소가 그 어휘적인 내용의 일부를 상실하기 시작하면 문법화 과정을 겪는다고 보았다. 한편, 정순기·이기원(1984)에 따르면 문법화 과정이란 어떤 변화 과정에 있는 단어가 본래의 실질적인 어휘적 의미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 단어들의 어휘적 의미들과의 연계를 보존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가 서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치고'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휘적인 의미를 지닌 '치-'가 연결어미 '-고'를 취하여 문법적인 기능을 지닌 '-치고'를 형성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치고'는 원래 동사 '치-'의 어휘적인 의미의 일부를 상실하지만 '치-'의 어휘적 의미들과의 연계를 보존하고 있다. '-치고'는 이런 문법화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법화론 학자들은 문법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모형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Heine *et al.*(1991)을 들 수 있다. Heine *et al.*(1991)에서는 문법화의 모형으로 탈색 모형(Bleaching Model), 잃기-얻기 모형(Loss-and-Gain Model), 중복 모형(Overlapping Model), 원형 확대 모형(Prototype Extension Model), 환유-은유 모형(Metonymic-Metaphorical Model)의 다섯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본고의 대상인 '-치고' 역시 이들 모형에 맞추어 문법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논의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이 다섯 가지 모형에 대해 살펴보겠다.[6]

탈색 모형(Bleaching Model)이란 문법화에서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는', 즉 탈색되

6) 이성하(2011: 269-286)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형이다. 탈색 모형의 장점은 문법화에서 생겨나는 의미 변화가 대개는 의미가 일반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설명해 준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모든 문법화가 반드시 의미의 소실이나 축소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용론적 함축의 관습화에 의해 의미가 더 풍부해지고 강화되는 일도 있다.

잃기-얻기 모형(Loss-and-Gain Model)이란 문법화에서 의미의 소실과 추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는 모형이다. 잃기-얻기 모형은 이러한 의미 소실과 추가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잃기-얻기 모형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의미의 소실과 추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모형 자체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의미의 소실 원인 중 하나는 화자가 의도한 것만큼의 의미 효과를 청자가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에누리해서 이해하는 인플레(inflation) 현상에 있고, 의미 추가의 원인은 앞서 말한 대로 화용론적 함축의 강화에 있다.

중복 모형(Overlapping Model)이란 문법화에서 이전 단계와 그 후속 단계 사이에 경계가 선명하지 않고, 중간 단계에서는 두 단계에서의 의미기능이 모두 공존하여 나타나는 문법화의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다.

원형 확대 모형(Prototype Extension Model)은 하나의 범주가 어떠한 조정 과정을 거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원형 확대 모형은 문법화에 수반되는 많은 현상들을 모두 포착하여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한 개념의 문법화 이전 상태와 문법화 이후 상태 사이에 동일한 개념성이 있음을 나타내준다.

환유-은유 모형(Metonymic-Metaphorical Model)은 문법화에 나타나는 두 가지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 두 가지 원동력 중의 하나는 하나의 인지적 영역에서 다른 인지적 영역으로 전이되는 은유의 과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맥에 의해 유도된 재해석 즉 환유의 과정으로서, 이 환유의 과정은 연속적으로 의미 중복을 발생시켜서 연쇄 구조를 갖게 한다. 환유-은유 모형에 따르면 하나의 개념은 차츰차츰 새로운 의미들을 문맥에 의해서 습득되게 되고, 새로 습득된 의미는 의미초점으로 변화하면서 다시 그것으로부터 관련된 다른 의미로 변화하여, 마침내는 최초의 의미와는 다른 영역에 있는 새로운 의미로 쓰이게 된다.

이상에서 문법화의 다섯 가지 모형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이상의 모형을 적용하여 '치-'와 '-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서론에서 본 바와 같이 동사 '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산에 넣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등 실제적인 의미도 있고, '인정하거나 가정하다' 등 추상적인 의미도 있다. '계산에 넣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범주에 넣는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인정하거나 가정하다'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떤 범주에 넣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를 예문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ㄱ. 너까지 쳐서 열 명이다.
ㄴ. 철수는 영희를 최고의 신부감으로 친다.

(2ㄱ)의 '치-'는 '계산하다'를 의미하고, (2ㄴ)의 '치-'는 '인정하다'를 의미한다. (2ㄱ)의 '치-'는 화자가 상대방까지 세어서 '열 명'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2ㄴ)의 '치-'는 철수가 머릿속에서 영희를 '최고의 신부감'의 범주에 넣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문법화한 '-치고'는 문맥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전체가 예외 없이'라는 의미이다. '-치고'는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기능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본고는 '-치고'가 '-치고$_1$'과 '-치고$_2$'의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상정한다. '-치고$_1$'은 '어떤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 중에서 예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구문을 형성하며, '-치고$_2$'는 '어떤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지 않는 구성원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구문을 형성한다. 다음은 '-치고$_1$'과 '-치고$_2$'가 쓰인 예문이다.

(3) ㄱ. 치고$_1$: (오늘 날씨는)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
ㄴ. 치고$_2$: 한국인치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3ㄱ)은 '-치고$_1$'이 쓰인 예문이고, (3ㄴ)은 '-치고$_2$'가 쓰인 예문이다. (3ㄱ)은 '겨울 날씨'는 보통 추운 속성을 가지지만 오늘 날씨는 예외적으로 따뜻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3ㄴ)의 화자는 한국인들이 모두 한글을 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3ㄴ)은 한국인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한글을 안다는 속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상의 예문을 통하여 동사 '치-'와 '-치고'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 동사 '치-'는 다양한 어휘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동사 '치-'뒤에 연결어미 '-고'를 취하여 문법화한 '-치고'에서는 '치-'가 원래 지닌 실제적인 의미(값을 매기다, 계산에 넣다)와 추상적인 의미(어떤 기준으로 삼다, 가정하거나 인정하다)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문법화한 '-치고'에는 실사인 '치-'의 어휘적인 의미가 모두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치-'와 '-치고'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사인 '치-'는 실제적인 의미이든지 추상적인 의미이든지 모두 '어떤 범주에 넣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실제적으로 어떤 범주에 포함시키는 과정이나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떤 범주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고$_1$'은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의 의미를 나타내며, '어떤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 중에서 예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의 구문을 구성하고, '-치고$_2$'는 '그 전체가 예외 없이'의 의미를 나타내며, '어떤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지 않는 구성원이 없다'의 구문을 구성한다. '-치고$_1$'과 '-치고$_2$'가 구성하는 구문을 보면 모두 '어떤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에 관한 것인 것이다. 그러나 동사 '치-'와 달리 '-치고'는 '범주에 포함시키는 일을 하고 나서'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의미는 '-고' 때문일 것이다.

이상에서 동사 '치-'와 '-치고'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치고'는 동사 '치-'가 문법화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고'는 문법화 과정에서 동사 '치-'의 어휘적인 의미를 많이 상실하고 새로운 의미('-치고$_1$'과 '-치고$_2$'의 의미)와 문법기능('-치고$_1$' 구문과 '-치고$_2$' 구문)을 획득했다. 이와 같은 '-치고'의 문법화 과정에서 발생한 의미의 소실과 추가를 통해 '-치고'의 문법화는 '잃기-얻기 모형'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잃기-얻기 모형'은 의미 추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형 자체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모형만으로는 '-치고'의 의미 추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환유-은유 모형'을 적용하여 설명을 시도해볼 것이다.

'환유-은유 모형' 중 환유의 과정은 문맥에 따라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치고'가 문법화 과정에서 새로 획득한 의미는 '-치고'가 구성하는 구문으로부터 나온다. '-치고'가 구성하는 구문을 문맥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치고'의 문법화 과정은 '환유-은유 모형'으로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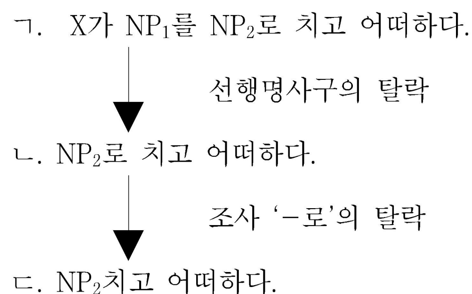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치고'는 문법화 과정에서 동사 '치-'의 어휘적인 의미가 많이 상실되며,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추가된다. 이는 문법화 과정의 모형들 중에서 '잃기-얻기 모형'과 '환유-은유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어의 조사는 실사인 동사에서 문법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경우가 많다. 문법화를 거쳐 형성된 조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동사가 어미 '어'를 취하여 조사화 된 것('부터', '더러', '조차' 등)이고, 다른 하나는 동사가 어미 '-고'를 취하여 조사화 된 것('하고', '보고', '가지고', '빼고', '치고', '말고' 등)이다. 본고의 논의의 대상인 '-치고'는 후자에 해당한다. '-치고'의 지위에 대해서는 '-치고'가 '치-' 뒤에 연결어미 '-고'를 취하여 보조사로 문법화하였다는 견해(임동훈(2004), 최형용(2005), 서태길(2009)등)가 있고, 반면 '치고'가 여전히 동사 '치-'의 활용형이라고 보는 견해(채완(1995), 한용운(1995), 한용운(2003))도 있다. 본고에서는 '-치고'가 동사 '치-'가 문법화 과정을 거쳐 조사가 되었다는 전자의 견해를 지지하나, 다만 '-치고'를 보조사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룰 것이다.

다음으로는 '-치고'의 문법화 과정을 같은 계열에 속하는 다른 조사들과의 대비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치고'를 보조사로 인정하는 견해 중, '치-'의 문법화 과정을 자세히 논한 것에는 서태길(2009)가 있다. 본고에서는 서태길(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의 문법화 과정을 소개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1>



위의 <표1>은 서태길(2009)에서 제시한 '치-'의 문법화 과정이다. (ㄱ)은 논항을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다 갖춘 문장이다. (ㄴ)은 선행명사구가 탈락한 문장이다. (ㄷ)은 조사 '-로'가 탈락한 문장이다. 이러한 각 단계를 거치면서 문법화가 일어난다고 본 것이 서태길(2009)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법화 과정은 다른 'V+고'가 문법화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간주된다.7)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치-'가 이와 같은 문법화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문장을 작성해 보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이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4) ㄱ. *오늘 날씨를 겨울날씨로 치고 따뜻하다.
ㄴ. *겨울날씨로 치고 따뜻하다.
ㄷ. 겨울날씨치고 따뜻하다.

예문 (4)는 <표1>에서 제시한 '치-'의 문법화 과정을 예문으로 구성하여 보인 것이다. (4ㄱ)은 문장 성분을 모두 갖춘 문장이나 부자연스럽다. (4ㄴ)은 선행 명사구가 탈락한 문장으로, 역시 완전히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4ㄷ)은 본고에서 언급하는 '-치고$_1$'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이는 각주 7)에서 본 바와 같이 '치-'가 아닌 다른 동사

---

7) 서태길(2009)는 '치고, 말고'에 대해서 이상의 문법화 과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외에도 'V+고'의 형식으로 문법화한 조사에 해당하는 '가지고'와 '빼고'에도 이러한 과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치고'를 제외한 나머지 셋의 문법화 과정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말고: ㄱ. 철수는 가지 말고 영희가 가라.
ㄴ. 철수는 말고 영희가 가라.
ㄷ. 철수말고 영희가 가라.

② 가지고: ㄱ. 엄마가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다.
ㄴ.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다.
ㄷ. 밀가루가지고 빵을 만들었다.

③ 빼고: ㄱ. 철수를 빼고 우리끼리 가자.
ㄴ. 철수빼고 우리끼리 가자.

'말고, 가지고, 빼고' 앞에 선행하는 조사가 생략되지 않을 때에는 '보-, 말-, 가지-, 빼-'의 활용형으로, 선행하는 조사가 생략될 때에는 조사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모든 논항을 다 갖추었던 문장에서 문장의 일부나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가 탈락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의 문법화 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비문법적인 문장에서 문법적인 문장이 도출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치-'의 문법화 과정은 다른 'V+고'의 문법화 과정의 설명 방식으로 동일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태길(2009)에서 다루는 '치-'의 문법화 과정은 본고의 '-치고$_1$'만을 대상으로 하고 , '-치고$_2$'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치-'의 문법화 과정이 'V+고'로부터 문법화한 다른 조사의 문법화 과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치고'의 문법화 과정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본고에서 제시하기는 힘들 듯하다. 다만 문법화의 과정을 설정함에 있어서 '-치고'에는 특수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문법화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한편 '치-'의 문법화 과정은 '말-'과 '빼-'의 문법화 과정과 공통되는 점도 있다. 다음에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5) ㄱ. 철수말고 영희가 가라.
ㄴ. 철수빼고 우리끼리 가자.
ㄷ.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
ㄹ. 한국인치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 없다.

(5ㄱ)은 '-말고'가 쓰인 예문이고, (5ㄴ)은 '-빼고'가 쓰인 예문이다. (5ㄷ)은 '-치고$_1$'이, (5ㄹ)은 '-치고$_2$'가 쓰인 예문이다. (5ㄱ)의 '-말고'와 (5ㄴ)의 '-빼고'는 모두 [배제]나 [제외]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그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활동은 모두 화자의 머릿속에서 하는 인지활동이다. (5ㄱ)에서 철수를 [제외]하고 영희가 가라는 결정은 화자가 내린 것이다. (5ㄴ)에서 철수를 [배제]하고 우리끼리 가자는 결정 역시 화자가 내린 것이다. '-치고' 역시 마찬가지다. (5ㄷ)의 경우 화자의 인식에는 일반적으로 겨울 날씨는 추운데 오늘의 날씨는 예외적으로 따뜻하다. (5ㄹ) 역시 화자의 한국인들이 모두 한글을 안다는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5ㄷ)의 '-치고$_1$'과 (5ㄹ)의 '-치고$_2$' 모두 화자가 인지활동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처럼 '-치고'와 '-말고', '-빼고'에는 화자의 인지활동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공통적인 것이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2.2. 반(反)기대 표지

반(反)기대 표지는 화자의 기대와 어긋남에 관한 문법요소이다.[8] 박진호(2011)에서 '의외성(mirativity)'에 대해 다루면서 반(反)기대(counter-expectation), 즉 화자의 기대와 어긋남에 대한 개념을 잠시 언급한 바 있다.

박진호(2011:7)에서 의외성이란,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뜻밖임(unexpectedness), 신정보(new information)임을 나타내는 문법범주이다.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화자의 기존의 지식 체계의 일부가 아니라, 새로 알게 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화자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상태(unprepared mind)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고. 놀라움(surprise)의 감정을 함께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본고의 '-치고' 역시 의외성 표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진호(2011)에서의 의외성 표지는 '-치고'의 특징을 드러내기에는 다소 여러 상황을 포괄한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놀라움, 준비되지 않은 마음 상태'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 '-치고'를 설명함에 있어서 의외성 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치고'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치고'의 특성을 드러내는 용어로서 '반기대 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의외성과 달리 '반기대'는 반드시 화자의 기대와 어긋남을 가리킬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치고'에서는 'NP치고$_1$' 구문 서술 대상의 특성이 화자의 기대와 어긋나게 나타나게 된다.

본고에서 다루는 'NP치고$_1$'은 전술한 대로 화자가 머릿속에 인식한 NP 범주의 속성이 실제적으로 느낀 NP범주에 속하는 구성원의 속성과 상반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치고$_1$'은 반(反)기대표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면 이

---

8) 한국어의 '오히려'나 중국어의 '反而(fǎn ér) , 倒(dào) , 都(dōu)' 등과 같은 어휘요소들도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박진호(2011)에서의 언급에 따르면 어휘요소는 의외성 표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참고로 중국어 '反而, 倒, 都'에 대한 설명을 붙인다.
① 反而: 雨不但没停 , 反而越来越大了。(비가 그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점점 많이 내렸다.) 화자가 기대하는 것은 비가 그치는 것인데, 화자의 기대와 어긋나게 비가 많이 내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② 倒: 我没生气 , 他倒生气了。(나는 화내지 않았는데, 그가 오히려 화냈다.) 이 문장은 '그'가 화자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화자에게 화를 낼 것이라고는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가 화자에게 화를 냈음을 뜻한다.
③ 都: 他都考上了 (그 사람도 붙었다.) 그 사람이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머리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화자는 그가 시험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 역시 합격하여서 화자의 기대와 어긋났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를 알 수 있다.

(6) ㄱ.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
ㄱ'. *겨울 날씨치고 춥다.
ㄴ. 화장실치고 깨끗하다.
ㄴ'. *화장실치고 더럽다.

(6ㄱ, ㄴ)은 '-치고$_1$'이 쓰인 예문이다. (6ㄱ)은 화자가 알고 있는 보통의 겨울 날씨라면 추워야 하는데 그러한 기대와 달리 오늘은 따뜻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6ㄴ) 역시 화자의 인식에서 화장실은 보통 더러운 곳인데 지금 눈에 보이는 화장실은 화자가 기대한 것과 달리 깨끗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나 (6ㄱ', ㄴ')과 같이 화자가 기대했던 속성과 일치하는 내용이 연결될 때에는 오히려 비문이 된다. 따라서 '-치고$_1$'은 반(反)기대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3. 부정극어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s)란 부정표현과 함께 나타나는 말이다. '-치고$_2$'는 '어떤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 중에서 어떤 속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 없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을 형성하는데, 이 경우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없다'나 '별로 없다, 거의 없다' 등과 같이 희소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표현이 호응되지 않는 경우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따라서 '-치고$_2$'는 일종의 부정극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예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7) ㄱ. 한국인치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ㄱ'. *한국인치고 한글을 다 안다.
ㄴ. 사람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ㄴ'. *사람치고 돈을 다 좋아한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7ㄱ, ㄴ)은 '-치고$_2$'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없다'와 호응하여 쓰인 문장이다. (7ㄱ)은 '한국인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한글을 안다는 속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의 의미를 나타내며, (7ㄴ)은 '사람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돈을 좋아한다는 속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7ㄱ)의 '-치고$_2$'의 후행요소를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의 의미와 일치하는 '한글을 다 안다'로 대치한 경우 (7ㄱ')와 같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7ㄴ) 역시 '-치고$_2$'의 후행요소인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의 의미와 일치하는 '돈을 다 좋아한다'로 대치하면 마찬가지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치고$_2$'가 쓰이면 뒤에 반드시 '없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치고$_2$'는 일종 부정극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3. 동사 '치다'의 형태· 통사적 특성

3.1. 형태적 특성

'치-'의 형태적 특징은 주로 '치-'가 어미와 결합하는 양상과 관련해서 논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주로 말뭉치를 이용한 통계적 검증 방법을 통해 '치-'와 연결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말뭉치 자료를 살펴보면 '치-'와 잘 결합되는 어미(-고, -면, -자면, -어서)도 있고 잘 결합되지 못하는 어미(-었-, -시-)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치-'의 어미와의 결합 양상이 '치-'의 의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음에서 논의할 것이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나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각 대사전에서 '치-'의 의미에 대한 기술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준》, 《연세》, 《고려》, 《금성》, 《우리말》 등의 대사전에서 '치-'에 대해 뜻풀이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1)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ㄱ. 인정하거나 가정하다. (예: 그는 내 작품을 최고로 쳤다(인정); 그래, 내가 잘못한 것으로 치고 더 이상 딴 소리 하지 마라(가정).)
ㄴ. 계산에 넣다. (예: 너까지 인원에 쳐야 모두 열 명이다.)
ㄷ. 값을 매기다. (예: 적어도 한 개당 오백 원을 쳐야 손해를 안 본다.)
ㄹ.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다. (예: 생명 모질기로 치자면 아마 나보다 더한 사람도 없었을 거요.)

이 네 가지 뜻풀이는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다의어가 하나의 낱말이 일련의 관련된 여러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치-'도 다의어라고 할 수 있다. 다의어에서 다의를 이루는 의미는 크게 중심의미와 주변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치-'의 여러 가지 의미도 그러한 구분이 가능하다. '치-'의 의미에는 실제적인 의미(값을 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기다, 계산에 넣다)도 있고, 추상적인 의미(어떤 기준으로 삼다, 가정하거나 인정하다)도 있다. 그러나 이중 어떤 의미가 '치-'의 중심의미인지, 어떤 의미가 '치-'의 주변의미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실제적인 의미와 추상의미의 관련성만 보기로 한다.

<표2>



위의 <표2>를 통하여 '치-'의 실제적인 의미가 추상적인 의미와 매우 비슷하며 서로 연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값을 매기다'나 '계산에 넣다'의 의미는 실제 세계에서 다른 범주에 있는 것을 일정한 범주에 넣는다는 의미를 갖게 되고, '어떤 기준으로 삼다'나 '인정하거나 가정하다'는 사람의 인지 세계에서 다른 범주에 있는 것을 일정한 범주에 넣는다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예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ㄱ. 너까지 쳐서 열 명이다.
ㄴ. 철수는 연희를 최고의 신부감으로 친다.

(2ㄱ)은 '계산에 넣다'라는 실제적인 의미를 지닌 '치-'의 예문이고, (2ㄴ)은 '인정하다'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치-'의 예문이다. (2ㄱ)은 화자가 인원을 셀 때 청자를 인원의 범주에 넣어서 총 열 명이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2ㄴ)은 철수의 인지 세계에서 연희를 최고의 신부감의 범주에 넣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상에서 '치-'의 의미의 대해 살펴봤다. 다음에서 '치-'와 결합할 수 있는 어미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3>과 같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표3>

순위	어미	빈도	순위	어미	빈도
1	고/EC	101	25	면은/EC	2
2	면/EC	96	26	어야/EC	2
3	더라도/EC	81	27	었었/EP	2
4	자/EF	41	28	ㅂ시다요/EF	1
5	자면/EC	31	29	ㄴ/ETM	1
6	어도/EC	29	30	다던디/EC	1
7	어서/EC	26	31	ㄴ다믄/EC	1
8	어/EC	19	32	ㄹ까요/EF	1
9	ㄴ다면/EC	18	33	거니와/EC	1
10	ㄴ다/EF	17	34	겠/EP	1
11	는/ETM	17	35	고는/EC	1
12	었/EP	14	36	기/ETN	1
13	ㄹ/ETM	9	37	나/EC	1
14	ㅂ시다/EF	8	38	나요/EF	1
15	지/EC	7	39	느냐/EC	1
16	는데/EC	6	40	러/EC	1
17	지만/EC	4	41	려는/ETM	1
18	구/EC	4	42	먼/EC	1
19	ㄴ다/EC	3	43	며/EC	1
20	곤/EC	3	44	면/EF	1
21	어/EF	3	45	시/EP	1
22	자/EC	3	46	자는/ETM	1
23	ㅂ니다/EF	2	47	잖아요/EF	1
24	든가/EC	2	48	죠/EF	1

<표3>은 세종 말뭉치 통계 검증방법을 통하여 추출한 '치-'와 결합할 수 있는 어미를 빈도순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치-'와 자주 결합하는 어미도 있고, 비록 결합하기는 하지만 아주 드문 빈도로 나타나는 어미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표에 나타나지는 않으나 '치-'와 결합하지 않는 어미도 있다. 이러한 결합 빈도의 차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는 '치-'의 형태·의미적인 특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치-'의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분석하여 '치-'의 형태·의미적인 특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위의 <표3>을 통하여 우선 살펴볼 수 있는 점은 '치-'와 결합이 가능한 어미가 한국어의 전체 어미의 체계를 고려한다면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어떤 동사가 특정 문법 요소와 결합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그 동사가 문법화의 과정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치-'와 어미와의 결합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 역시 '치-'도 문법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3>을 보면 '치-'와 자주 결합되는 연결어미에는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고', 가정을 나타내는 '-면, -자면', 양보를 나타내는 '-더라도, -어도',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어서' 등이 있다. 특히 '치-'와 연결어미 '-고'의 결합 빈도는 다른 연결어미와의 결합 빈도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치-'가 다른 어미에 비해 연결어미 '-고'와 결합하여 문법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 하겠다.[9] 한편 '치-'가 가정을 나타내는 '-면, -자면', 양보를 나타내는 '-더라도, -어도',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어서' 등과 잘 결합하는 것은 '치-'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예시를 통하여 '치-'의 활용양상을 볼 것이다. 우선 동사 '치-'와 결합 빈도가 제일 높은 연결어미 '-고'와 결합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ㄱ. 용모는 그처럼 상반된다고 치고 소행이 어떤지 알아보기로 하자.
ㄴ. 정부의 색깔은 그렇다 치고 국정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이다.
ㄷ. 부피는 그렇다 치고, 우선 무게만 해도 엄청나니까요.
ㄹ. 파리에 계신다 치고,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예문 (3)은 동사 '치-'가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와 결합된 예문이다. 서정섭(1991)에서는 '-다 치고'는 문맥에 따라서 양보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가정적 양보표현이라고 하였다. 서정섭(1991)에 따르면 양보문은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의미상으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 상반되는 내용은 기대를 부정하는 관계이다. 양보문은 화맥에 따라서 주어의 의지, 결심을 나타내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문 (3ㄱ~ㄹ)은 모두 '-다 치고'의 구성인데 선행절과 후행절이 의

9)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미상으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다. 단지 선행절의 내용보다 화자가 후행절의 내용에 더 관심이 많을 뿐이다.

본고는 '치-'가 '가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와 결합함으로써 어떤 사실을 임시로 인정하여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후행절의 사건에 대한 관심을 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문을 해석해 본다면 (3ㄱ)은 용모보다 소행이 어떤지에 대해 관심이 많음을 의미하고, (3ㄴ)은 정부의 성향보다는 국정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문제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3ㄷ)에서 화자의 중심은 부피보다 무게에 있으며. (3ㄹ)은 앞에 '파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할 일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다음은 '치-'와 연결어미 '-어서'가 결합된 예문이다.

(4) ㄱ. 하루에 만원씩 쳐서 이만 원이야.
ㄴ. 그 작자가 갖다 준 돈을 이자까지 쳐서 갚은 셈이니까.
ㄷ. 일반적으로 1년을 1세로 쳐서 나이를 센다.
ㄹ. 어이없는 것으로 쳐서는 이 이상 어이없을 수가 없었다.

위에 제시한 예문 (4)는 동사 '치-'가 계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서'와 결합된 것이다. 이때의 '치-'는 '값을 매기다, 계산하다'라는 실제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4ㄱ~ㄷ)에서와 같이 앞에 오는 것은 주로 '돈, 이자, 나이' 등 셈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다. (4ㄹ)은 다른 예문과 달리 보통은 셈할 수 없지만 추상적으로 그 크기를 측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치-'와 연결어미 '-자면'이 결합된 예문을 보자.

(5) ㄱ. 쓰레기처리장 역시 집으로 치자면 측간이나 마찬가지로 없으면 안 되는 시설이다.
ㄴ. 전선이란 지금으로 치자면 전기통신을 가리킨다.
ㄷ. 주자부터 치자면 오백 년이 되었지.
ㄹ. 사무실 쪽에서 치자면 세 번째 집이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5)는 동사 '치-'가 연결어미 '-자면'과 결합된 문장이다. '-자면'은 의도하거나 헤아리는 바를 가정하여 뒤의 결과적 사실에 이어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치-'는 '헤아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앞에 항상 '-(으)로, -부터, -에서' 등 기준을 나타내는 조사와 결합된다. 시간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부터'나 장소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에서'와 결합하는 경우 그 의미는 기준점으로부터 헤아리는 것이다. (5ㄷ)과 (5ㄹ)은 이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선행요소 조사가 '-(으)로'일 경우는 청자에게 무엇을 잘 설명하기 위해 청자가 잘 아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어미 '-자면'과 결합 빈도가 높은 것은 '치-'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에서 동사 '치-'와 연결어미 '-면'의 결합된 예문을 볼 것이다.

(6) ㄱ. 중화신탁공사는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은행격이다.
ㄴ. 액수로 치면 연간 120억원 정도다.
ㄷ. 요리로 치면 어렵지 않다.[10)]

(6)에서는 동사 '치-'가 가정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면'과 결합되어 있다. (6ㄱ)과 (6ㄴ)은 생소하거나 잘 닿지 않는 대상을 잘 설명하기 위해 선행절에서는 청자가 잘 아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후행절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헤아릴 때 어떤 결과를 도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동사 '치-'가 연결어미 '-자면'과 결합한 경우의 용법과 비슷하다. (6ㄱ)은 '중화신탁공사'라는 것은 한국 사람한테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므로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산업은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6ㄴ) 역시 사람들에게 잘 와 닿지 않는 어떤 대상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6ㄷ)도 마찬가지로 선행절이 기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선행절을 이 기준으로 생각할 때 서술하는 대상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후행절에서 다룬다. (6ㄷ)은 화자가 인식한 것은 요리가 어렵고 복잡한데 지금 보는 요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특성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동사 '치-'와 잘 결합할 수 있는 연결어미들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동사 '치-'와 잘 결합하지 못하는 어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법화, 관용 표현화되고 있는 동사는 중간적인 단계를 거치게 된다. 다시 말해 활용상의 제약이 있게 된다.

---

10) 보통 '요리치고 어렵지 않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나, 한국인들이 '요리로 치면 어렵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요리치고 어렵지 않다'라는 표현 대신 쓰는 경우가 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치-’ 역시 문법화의 중간 단계에 있는 동사로서 그러한 제약을 겪고 있다. 따라서 ‘치-’의 활용상의 제약을 검토하는 것이 ‘치-’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위의 <표3>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동사 ‘치-’의 활용형은 매우 한정적이다. 여기에서는 동사 ‘치-’와 선어말어미 ‘-었-’, ‘-시-’의 결합만을 볼 것이다.

(7) ㄱ. 부피는 그렇다 치고, 우선 무게만 해도 엄청나니까요.
ㄱ'. *부피는 그렇다 치시고, 우선 무게만 해도 엄청나니까요.

(8) ㄱ. 하루에 만원씩 쳐서 이만 원이야.
ㄱ'. *하루에 만원씩 치셔서 이만 원이에요.

(9) ㄱ. 전선이란 지금으로 치자면 오백 년이 되었지.
ㄱ'. *전선이란 지금으로 치시자면 오백 년이 되었죠.

(10) ㄱ. 요리로 치면 어렵지 않다.
ㄱ'. *요리로 치시면 어렵지 않아요.

(7~10ㄱ)은 차례로 동사 ‘치-’가 연결어미 ‘-고, -어서, -자면, -면’과 결합된 예문이다. 이들은 모두 문법적인 문장이다. (7~10ㄱ')은 차례로 동사 ‘치-’와 연결어미 ‘-고, -어서, -자면, -면’ 사이에 선어말어미 ‘-시-’를 삽입시킨 예문인데 이들은 모두 비문법적이다. 이는 ‘치-’의 의미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치-’는 앞에 논의한 바와 같이 ‘계산하다, 인정하거나 가정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실제로 계산하거나 인정하거나 가정하는 주체가 화자이기 때문에 주체높임어미 ‘-시-’와 결합하기 어렵다.

다음은 ‘치-’ 뒤에 연결어미 ‘-었-’이 연결된 예문이다.

(11) ㄱ. 부피는 그렇다 치고, 우선 무게만 해도 엄청나니까요.
ㄱ'. *부피는 그렇다 쳤고, 우선 무게만 해도 엄청났으니까요.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12) ㄱ. 전선이란 지금으로 치자면 오백 년이 되었지.

ㄱ'. *전선이란 지금으로 쳤자면 오백 년이 되었지.

(13) ㄱ. 요리로 치면 어렵지 않다.

ㄱ'. *요리로 쳤으면 어렵지 않았다.

(11~13ㄱ)은 동사 '치-'가 연결어미 '-고, -자면, -면'과 결합된 예문으로 문법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이들 문장에 (11~13ㄱ')에서와 같이 동사 '치-'와 연결어미 '-고, -자면, -면'의 사이에 선어말어미 '-었-'을 삽입시킨 경우 이 문장들은 비문이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는 '헤아리다, 인정하거나 가정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인지행위는 특정 상황에서 발화하는 그 순간 일어나는 것이기에 과거의 의미를 가진 선어말어미 '-었-'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 까닭에 (11~13ㄱ')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14) ㄱ. 그렇게 치세요.

ㄴ. 그는 내 작품을 최고로 쳤다.

그러나 (14ㄱ)과 (14ㄴ)의 경우에서와 같이 '치-'와 종결어미 어미의 사이에 선어말어미 '-시-'나 '-었-'을 삽입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치-'가 '헤아리다, 가정하다'의 의미보다는 '여기다, 인정하다'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14ㄱ)은 '그렇게 치세요'는 '그렇게 여기세요'의 의미와 가깝고, (18ㄴ)은 '그는 내 작품을 최고로 쳤다'는 '그는 내 작품을 최고로 인정했다'의 의미와 가깝다.

3.2. '치-'의 통사적 특성

3.2.1. '치-' 와 문장 유형의 상관관계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국어의 문장형은 일반적으로 크게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나뉜다. 그런데 '치-'는 보통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에 비해 청유문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는 '치-'의 통사적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앞에서 제시한 '치-'의 활용 빈도표인 <표3>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표4>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표4>는 세종 말뭉치에서 '치-'와 종결어미가 결합한 용례를 종결어미 종류별로 통계를 낸 것이다. 대부분 평서문, 청유문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중 청유문 종결어미와 결합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4>

'치-'와 종결어미가 결합한 용례	총 76 개
평서문 종결어미	24 개
의문문 종결어미	1 개
명령문 종결어미	1 개
청유문 종결어미	50 개

위의 <표4>를 통하여 '치-'가 청유문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서 '치-'가 청유문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5) ㄱ. 그는 내 작품을 최고로 쳤다.
ㄴ. 선생님은 무슨 작품을 최고로 치십니까?
ㄷ. 그 사람을 네 형으로 쳐라.
ㄹ. 범죄는 나쁜 것이라고 치자. 그러나 인간이 나쁜 것이 아니다. (서정섭 1991)

(15ㄱ~ㄹ)은 차례로 동사 '치-'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에서 나타나는 예문이다. 동사 '치-'가 평서문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치-'가 '여기다,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15ㄱ), (15ㄴ), (15ㄷ)에서의 '치-'는 '여기다, 인정하다'라는 의미에 가깝다. (15ㄱ)의 '그는 내 작품을 최고로 쳤다'는 '그는 내 작품을 최고로 인정하였다.'의 의미에 가깝다. (15ㄴ)의 '선생님은 무슨 작품을 최고로 치십니까?'는 '선생님은 무슨 작품을 최고로 인정하십니까/간주하십니까?'의 의미를 나타낸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그러나 평서문과 달리 '치-'가 청유문에서 나타날 때에는 '인정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가정하다'의 의미에 더 가까워진다. 어떤 화제를 언급하기 전에는 발화 배경이나 발화 전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청자와 화자가 모두 임시로 인정해야 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뒤에서 언급할 화제의 발화 배경이나 발화 전제가 될 수 있다. '치-'에는 '가정하다'의 의미가 있으므로 '치-'의 사용을 통해 이러한 발화 배경이나 발화 전제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원인으로 '치-'가 청유문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한편 서정섭(1991)에서는 '-다 치자'를 가정적 양보표현이라고 하였는데, 필자는 '-다 치자'는 양보표현이라기보다는 가정표현[11]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6) ㄱ. 범죄는 나쁜 것이라고 치자. 그러나 인간이 나쁜 것이 아니다.
ㄴ. 등록금을 내준다고 치자. 그런데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야?
ㄷ. 만약 전기가 꺼진다고 치자. 각 가정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할 것이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 화자는 일단 청자와 화자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의 인식을 배경으로 전제한다. 공통의 인식을 배경으로 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비로소 화자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6ㄱ)에서 화자와 청자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의 인식은 '범죄는 나쁜 것이다'이다. 그런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화자는 '인간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16ㄴ)에서 자녀가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경우 부모가 해결할 문제는 등록금과 생활비의 두 가지이다. 이 예문에서 부모와 자녀는 '부모가 등록금을 낸다'는 면에서 동일한 인식을 달성하였다고 가정하였고, 그러한 경우 부모가 고려해야 할 다음 문제는 생활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11) 그런데 '-다 치자'에서 '치-'에는 '가정하다'의 의미뿐만 아니라 '인정하다'의 의미도 있다. 따라서 '-다 치자'를 가정표현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 '가정하다'와 '인정하다'는 구별하기가 어렵다. '가정하다'는 넓은 의미로 '인정하다'를 포함할 수 있다. 즉, 화자가 상대방의 말이나 관점이 옳다고 생각할 때 '인정하다'라는 의미와 가까워 질 수 있는 것이다. '-다 치자'가 사용되는 문장에서 '치-'는 문맥에 따라 '가정하다'라는 의미도 나타내며, '인정하다'라는 의미도 나타낸다. 예문 (16ㄱ, ㄴ)에서 '치-'의 의미는 '인정하다'라는 의미와 가깝고, (16ㄷ)에서 '치-'의 의미는 '가정하다'라는 의미와 가깝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그리고 이 때 대개 앞 절과 뒷 절 사이에 '그러나, 그런데, 그러지만' 등 역접의 접속부사가 들어간다. (16ㄱ)에서는 앞 절과 뒷 절의 사이에 접속부사 '그러나'가 들어가 있고, (16ㄴ)은 앞 절과 뒷 절 사이에 '그런데'가 들어가 있다. 여기에서는 화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 청자의 견해를 인정해주면서 다른 얘기를 언급하면서 화제를 전환하고 있으므로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사용된 것이다. (16ㄷ)에서는 '-다 치다'가 가정적 표현이라는 것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전기가 꺼진다고 가정하면 각 가정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때는 순접을 나타내는 접속부사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다 치다'는 가정적 양보표현이라기보다는 가정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가정적 표현이기 때문에 뒷 절이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17) ㄱ. ?등록금을 내준다고 치자.
ㄴ. ?만약 전기가 꺼진다고 치자.

(18) ㄱ. 빨리 가자.
ㄴ. 맛있는 거 먹자.

(17)은 동사 '치-' 뒤에 종결어미 '-자'를 취한 예문이고, (18)은 일반 동사 '가-'와 '먹-' 뒤에 종결어미 '-자'를 취한 예문이다. (18ㄱ, ㄴ)은 동사 '가-'와 '먹-' 뒤에 종결어미 '-자'를 취하여 완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반면, (17ㄱ, ㄴ)은 종결어미 '-자'로 끝나지만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지 는 못한다. (17ㄱ)은 등록금을 내준다는 것을 가정만 하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를 나타낼 수 없으며, (17ㄴ)도 역시 전기가 꺼진다는 것을 가정만 하고 있기에 마찬가지로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3.2.2. '치-'의 논항의 특성

3.1에서는 '치-'를 다의어로 처리하고, '치-'의 다양한 의미가 서로 관련이 있음을 논의했다. 일반적으로 의미의 확장은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성하(1998:206)에서는 추상적인 영역의 의미는 늘 어원어의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구체적인 의미보다도 훨씬 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정하거나 가정하다'의 의미는 '치-'의 일반적인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치-'는 일반적으로 불완전동사, 인지동사, 내재동사라고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치-'의 구문은 3가지 논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지하는 주체인 '경험주', '인지대상' 그리고 인지 대상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인지 내용'이 필수적인 것이다. 통사적인 구문은 주로 'NP_1가 NP_2를 NP로 친다'의 문장을 구성하거나 '-다고 친다' 인용절[12] 또는 'NP가 NP를 어떻게 친다'와 같은 부사절 등의 내포절을 구성하기도 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 ㄱ. 그 판단이 모두 정확하다고 칩시다.
ㄴ. 예를 들어 매매를 10번 했다고 칩시다.
ㄷ. 당신이 심장병으로 쓰러졌다고 칩시다.

예문 (19)는 '-다고 치다'라는 인용절을 사용하는 예문이다. 이때의 '치-'의 의미는 '가정하다'와 더 가깝다. (19ㄱ)은 그 판단이 모두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판단이 모두 정확하다고 가정합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19ㄴ)은 매매를 몇 번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몰랐을 때, '매매를 10번 했다고 가정합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19ㄷ)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이 심장병으로 쓰러졌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고 치다'와 의미가 비슷한 표현으로 '-ㄴ 것으로 치다'를 들 수 있다. 위의 (19)의 예문을 '-ㄴ 것으로 치다'의 표현으로 바뀌면 다음과 같다.

(20) ㄱ. 그 판단이 모두 정확한 것으로 칩시다.
ㄴ. 예를 들어 매매를 10번 한 것으로 칩시다.
ㄷ. 당신이 심장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칩시다.

예문 (20)은 (19)의 '-다고 치다' 대신에 '-ㄴ 것으로 치다'가 쓰인 예문이다. 예문 (20)은 (19)와 큰 의미 차이가 없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고 치다'와 '-ㄴ 것으로 치다'의 표현의 '치-'는 '인정

12) 본고는 서술어 '치-'가 '-다고'인용절과 쓰이는 구문을 서술어 '치-'의 구문으로 볼 것이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가정하다'라는 의미와 더 가깝다. '치-'의 통사적인 특성을 '치-'가 쓰이는 관용표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관용 표현에서 '치-'의 의미는 '가정하다'의 의미와 가깝다.[13)]

(21) ㄱ. 철수는 영희를 최고의 신부감으로 친다.
ㄴ. *철수는 영희를 친다.
ㄷ. *철수는 신부감으로 친다.

(21)는 서술어 '치-'가 'NP_1가 NP_2를 NP로 친다'의 구문에서 쓰이는 예문이다. (21ㄱ)에서 경험주는 '철수'이고 인지대상은 '영희'이고 인지내용은 '최고의 신부감'이다. 이러한 (21ㄱ)은 3가지 논항이 모두 갖추어진 문법적인 문장이다. 반면 (21ㄴ)처럼 경험주 '철수'와 인지대상인 '영희'만 있거나, (21ㄷ)처럼 경험주 '철수'와 인지내용만 갖춘 경우 역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22) ㄱ. 그녀는 그의 능력을 높게 친다.
ㄴ. *그녀는 그의 능력을 친다.
ㄷ. *그녀는 높게 친다.

(22)은 서술어 '치-'가 'NP_1가 NP_2를 어떻게 친다'와 같은 형식의 부사절 구문에서 쓰이는 예문이다. (22ㄱ)은 인지하는 주체 즉 경험주는 '그녀', 인지 대상은 '그의 능력', 인지 내용은 '높게'인 3가지 논항을 모두 갖춘 문법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22ㄴ)은 경험주와 인지대상만 있기 때문에 비문법적이며, (22ㄷ)은 경험주와 인지내용만 있기 때문에 역시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앞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치-'의 논항의 특성만 살펴보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치-'의 논항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치-'의 논항을 살펴볼 것이다.

3.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는 '인정하거나 생각하다'의 의미 외에 '값을 매기다', '계산에 넣다', '어떤 기준으로 삼다' 등의 의미도 지닌다. 이때에 '치-'는 그 의미에 따라 논항구조도 다르다. 아래에서는 '치-'의 의미별로 그 논항 구조를 살필 것이

13) '치-'가 쓰이는 관용표현은 3.2.3에서 살펴볼 것이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다.

‘값을 매기다’라는 의미를 지닌 ‘치-’는 일반적으로 논항이 3개 필요하다. 이때 동사 ‘치-’의 구문은 ‘(NP가) NP에 NP를 친다’와 같은 형식이 된다. ‘NP가’는 행동주를 나타내며 때로 생략될 수도 있다. ‘NP에’의 NP자리에는 항상 분류사가 나오며 ‘-에’ 대신에 접미사 ‘-당’도 쓸 수 있다. ‘NP를’의 NP에는 항상 ‘가격이나 값’을 나타내는 말이 나온다. 다음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3) ㄱ. 상인들은 한 개에 300원을 쳐서 팔려고 했다.
ㄴ. 적어도 한 개당 500원을 쳐야 손해를 안 본다.
ㄷ. 그러기로 말하면 제 식구 품값을 나날이 쳐서 원가 계산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지.

(23ㄱ)은 3가지 논항을 모두 갖춘 문장이다. ‘치-’의 행동주는 ‘상인들’이고 물건 한 개에 300원을 매긴다는 의미를 지닌다. (23ㄴ)은 행동주 ‘NP’가 생략된 문장이다. 그리고 조사 ‘-에’ 대신에 ‘마다’의 뜻을 더하는 ‘-당’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는 ‘계산에 넣다’라는 의미를 지닌 ‘치-’의 논항구조를 볼 것이다. ‘계산에 넣다’의 의미를 지닌 ‘치-’는 일반적으로 논항이 2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발화할 때에는 주어가 나타나지 않아도 문법적인 문장이 될 수 있다. 이때에 ‘치-’의 구문유형은 ‘(NP가) NP를/까지 친다’와 같다. 대격조사 ‘-를’ 대신에 조사 ‘-까지’도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면 ‘치-’는 ‘포함시키다’의 의미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4) ㄱ. 그 작자가 갖다 준 돈을 이자까지 쳐서 갚은 셈이니까.
ㄴ. 너까지 쳐야 열 명이다.
ㄷ. 오는 날까지 치면 5일 걸릴 것 같아.

(24ㄱ)은 주어와 목적어 두 가지 논항을 모두 갖춘 문장이다. ‘이자까지 쳐서’는 ‘이자까지 포함시켜서’의 의미를 나타낸다. (24ㄴ)과 (24ㄷ)은 주어가 생략되어 목적어만 있는 문장이다. (24ㄴ)은 ‘너까지 포함시켜야 열 명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24ㄷ)은 ‘오는 날까지 포함시키면 5일 걸릴 것 같아’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마지막으로 ‘어떤 기준으로 삼다’의 의미를 지닌 ‘치-’의 논항을 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기준으로 삼다’라는 의미를 지닌 ‘치-’는 늘 ‘가정’을 나타내는 어미 ‘-면’이나 ‘-자면’과 같이 쓰인다. 이때에 완전한 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논항이 2개 필요하다. 하나는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기준이다. 때로는 대상이 생략돼도 완전한 발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NP를) NP로 치면’, ‘(NP를) NP로 치자면’의 문장유형이 주로 쓰인다.

(25) ㄱ. 생명 모질기로 치자면 아마 나보다 더한 사람도 없었을 거요.
ㄴ. 돈으로 치면 7천원이다.
ㄷ. 이곳은 한국으로 치면 8학군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에 해당한다.

(25ㄱ)과 (25ㄴ)은 대상이 생략되고 기준만 있는 문장이다. (25ㄷ)은 대상과 기준을 다 갖춘 문장이다. 예컨대 (25ㄷ)과 같은 경우는 대상은 ‘이곳’이고 기준은 ‘한국’이다. 화자가 어떤 익숙하지 않은 특정 장소를 청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국을 기준으로 삼아 설명한 것이다.

3.2.3. ‘치-’의 관용표현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쓰이는 ‘치다’는 ‘-다손 치더라도’, ‘-은 그렇다 치고, -은 둘째 치고’, ‘-는/ㄴ 셈 치다’ 등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난다. 3.2.3.1에서는 ‘-다손 치더라도’를, 3.2.3.2에서는 ‘-은 그렇다 치고, -은 둘째 치고’를, 3.2.3.3.에서는 ‘~는/ㄴ 셈 치다’를 살펴보고자 한다.

3.2.3.1. -다손 치더라도

서정섭(1991)에서는 ‘-다손 치더라도’를 종결어미 ‘-다’와 ‘손’, 동사 ‘치다’와 양보의 접속어미 ‘-더라도’로 분석할 수 있는 가정적 양보표현이라고 설명한다. 이 관용표현에서 쓰이는 ‘치다’는 ‘가정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26) ㄱ. 철수는 나쁜 짓을 했다손 치더라도 나는 철수를 미워할 수 없다.
ㄴ. 철수는 나쁜 짓을 했더라도 나는 철수를 미워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철수가 나쁜 짓을 하면 나는 철수를 미워해야 할 것이다. (26ㄱ)은 관용 표현 '-다손 치더라도'가 쓰인 예문인데, '가정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치-'가 있기 때문에 철수는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철수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장이다. (26ㄴ)은 '-다손 치-'를 생략된 예문이다. '가정하다'의 의미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26ㄱ)에 비하여 '철수는 나쁜 짓을 했다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느껴진다.

중국어에서 '-다손 치더라도'에 해당하는 표현은 '就算'이다. '치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算'이며, '就算'과 같이 사용되면 '-다손 치더라도'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 표현은 한국어의 '-다손 치더라도'와 유사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算'이 한국어 '치다'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며, 원래의 '계산하다'라는 의미에서 '가정하다'의 의미로 의미변화를 겪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26ㄱ)의 예문을 '就算(jiù suàn)'을 사용하여 중국어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27) 就算哲秀做了坏事, 我也不能埋怨他。

3.2.3.2. -은 그렇다 치고, -은 둘째 치고

'-은 그렇다 치고'와 '-은 둘째 치고'는 비슷한 의미를 지니며, 화자가 선행절의 내용에 비해 후행절의 내용에 대해 더 관심이 많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은 그렇다 치고'는 '-은 그렇다고 치고'의 인용표지 '-고'가 생략된 것이며, '그렇다'를 씀으로서 선행절에서 언급한 대상에 대한 관심을 중단하고 후행절에서 언급하는 대상에 관심을 두겠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은 둘째 치고'는 '-은 둘째로 치고'에서 조사 '-로'가 생략된 것이다. 그러나 '-은 둘째로 치고'와 '-은 둘째 치고' 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은 둘째로 치고'는 실제로 2등으로 여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은 둘째 치고'는 실질적인 2등으로 여긴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후행절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의 내용이 선행절의 내용에 비해 중요하고 우선시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은 그렇다 치고'와 '-은 둘째 치고'의 예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28) ㄱ. 나는 남자니까 남자들은 그렇다 치고, 여자들은 그런 경우에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ㄴ. 나 새벽잠 못자는 건 둘째 치고 동네 창피해서 죽겠어.

(28ㄱ)은 '-은 그렇다 치고'가 쓰인 예문이고, (28ㄴ)은 '-은 둘째 치고'가 쓰인 예문이다. (28ㄱ)은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남자들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에 관계없이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다는 의미로 발화한 문장이다. 화자가 남자라서 남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여자의 반응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8ㄴ)에서는 화자가 새벽잠을 자지 못하는 것과 동네를 다니기가 창피하다는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화자에게는 새벽잠을 못 자는 것보다 동네를 다니기가 창피하다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3.3. -는/ㄴ 셈 치다

'-는/ㄴ 셈 치다'는 의존명사 '-셈'이 동사 '치-'와 결합된 것이다. 의존명사 '-셈'은 '세다'나 계산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치-'도 '계산에 넣다'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의존명사 '-셈'과 '치-'가 어울려 쓰일 수가 있으며, '-는/ㄴ 셈 치다'라는 관용 표현도 형성된다. 아래에서 '-는/ㄴ 셈 치다'의 예문을 살펴볼 것이다.

(29) ㄱ. 비 안 오는 셈 치고 소풍가자.
ㄴ. A: 먹을 것 사줄게.
B: 고마워, 시간이 없어서…. 먹은 셈 칠게.

(29ㄱ)은 '-는 셈 치다'가 쓰인 예문이고, (29ㄴ)은 '-ㄴ 셈 치다'가 쓰인 예문이다. (29ㄱ)은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고 소풍을 가자는 의미를 나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타낸다. (29ㄴ)은 A가 B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B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절을 하면서 먹은 것처럼 생각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4. 조사 '-치고'의 문법범주와 특성

4.1. 기존 사전들의 기술

본고에서는 '-치고'의 형태·통사·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기존 사전의 '-치고'에 대한 기술을 검토할 것이다. 기존의 사전들에서 보이는 '치고'에 대한 풀이를 제시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사전류	품사	뜻풀이	예문
《표준》	보조사	①그 전체가 예외 없이(흔히 부정을 뜻하는 말이 뒤따른다.) ②그 중에서 예외적으로	①남의 목숨 초개처럼 아는 사람치고 제 목숨을 천근처럼 알고 떨지 않는 사람 없다더니…. ②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
《연세》	보조사	①~은 예외 없이 모두(뒤에는 부정이나 의문을 뜻하는 말이 쓰임.) ②[기준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쓰이어] '~으로서는 제법, 상당히'의 뜻을 나타냄.	①이 고장 농사꾼치고 그렇게 힘차게 걷는 사람은 구경하기가 퍽 힘들어졌다./ 아아, 이 세상 만물치고 땅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랴./ 읍내 돈 좀 있다는 사람치고 안 물린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②어쨌든 돈 잘 벌리는 개업을 마다하고 학문의 길을 택했다니, 젊은이치고 대견한 노릇일세. / 쉰을 바라보는 나이치고 안 씨의 상체는 군살 한 점 없는 근육질로 뭉쳐져 있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고려》	보조사	①(체언의 뒤에 붙어, 주로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여) 그 전체가 예외 없이 모두 ②(체언의 뒤에 붙어) 앞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중에서는 예외적으로	①본처 박대하는 놈치고 잘된 놈 못 봤다. / 사람치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 ②그녀는 검사치고 꽤 겸손한 사람입니다. / 중소기업치고 그 회사처럼 내실 있는 곳은 드물다.
《금성》	조사	①그 전체가 예외 없이(아래에 흔히 부정을 뜻하는 말이 딸림). ②체언에 붙어, 그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①자식치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 없다. ②값싼 물건치고 쓸 만하다.
《우리말》	활용형	①(조사가 붙지 않은 체언 바로 다음에 ‘치고’ 또는 ‘쳐놓고’의 꼴로 쓰이어) 그 사물에 딸린 것으로 인정하거나 가정하다	겨울 날씨 치고는 포근하다./ 장사꾼 치고 셈 늦은 사람 봤나?/ 우리나라 사람 치고 김치 마다하는 사람은 없다./ 인정 쳐 놓고는 참으로 고약하구나.
《민중》	조사	①(체언에 붙어)그 전체가 예외 없이 ②(체언에 붙어) 그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①네 물건치고 쓸 만한 것 없더라. ②서양 사람치고는 키가 작다./ 값싼 물건치고는 아주 쓸 만하다.
《조선말》	미표시	①(<고> 형으로 일부 명사와 함께 쓰이여, <무엇 무엇이 고간에>의 뜻을 나타낸다. ②(<치고> 형으로 일부 명사 다음에 쓰이여, <마땅히 그 대상에 포괄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의 뜻을 나타낸다.	①그는 어느 날치고 기대청소를 해놓지 않은 날이 없다. ②이제 스물을 갓 지난 청년치고는 이던가 무게가 있어 듬직해보였고 로숙한 어른티가 풍기였다.

<표4>에 보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사전 중에서 《우리말》과 《조선말》을 제외한 다른 사전들은 모두 ‘-치고’를 조사나 보조사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뜻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풀이도 비슷하게 되어 있다. 《우리말》에서 '치고'는 '치-'의 활용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뜻풀이도 다른 사전과 달리 구분이 안 되어 있다. 즉 '그 사물에 딸린 것으로 인정하거나 가정하다'라는 뜻만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조선말》에서는 '치고'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치-'의 뜻풀이를 제시할 때 '치고'형과 '고'형이라는 쓰임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표준》, 《연세》, 《고려》에서 '-치고'는 보조사이며, 《금성》, 《민중》에서는 조사로 보고 있다. 《표준》, 《연세》, 《고려》, 《금성》, 《민중》에서는 '-치고'의 뜻풀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그 전체가 예외 없이'의 뜻이다. 《표준》, 《연세》, 《고려》, 《금성》에서는 '그 전체가 예외 없이'의 뜻을 지닌 '-치고'의 호응관계까지 실려 있다. 즉 뒤에 부정이나 의문을 뜻하는 말이 딸림을 명시하였다.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라는 뜻이다. 《연세》, 《고려》에서는 '-치고'의 두 번째 의미를 더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즉 '(기준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쓰이어) 제법, 상당히'의 뜻을 나타낸다.

'-치고'의 두 가지 뜻풀이는 중 '그 전체가 예외 없이'라는 의미는 '-치고'가 쓰이는 문맥에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 ㄱ.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
ㄴ. 겨울 날씨치고 따뜻한 날씨가 없다.

예문 (1ㄱ)과 (1ㄴ)은 모두 '-치고'가 쓰이는 문장으로, 두 문장의 선행 명사구도 동일하다. (1ㄱ)의 후행 요소는 '따뜻하다'이며, (1ㄴ)의 후행 요소는 '따뜻한 날씨가 없다'이다. (1ㄱ)은 '겨울날씨 중에서 예외적으로 따뜻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1ㄴ)은 '겨울날씨 중에서 따뜻한 날씨가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치고'는 쓰이는 구문에 따라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치고'를 '-치고$_1$'과 '-치고$_2$'로 나눠 보기로 하며, '-치고'의 문법적인 특성도 '-치고$_1$' 구문과 '-치고$_2$' 구문을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기존 사전과 기본논의에서 '-치고'에 대한 기술을 통하여 '-치고'의 문법범주가 통일되게 제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고'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치고'의 문법범주를 논의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4.2. '-치고'의 문법범주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고'의 문법범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 최현배(1946)에서는 '-치고'를 치기도움토(算入補助詞)로 보고 있고, 최현배(1983)에서는 감목 자리 토(資格格助詞)로 보고 있다. 채완(1998), 한용운(2003)에서는 '치고'를 동사 '치-'의 활용형으로 보고 있고, 임동훈(2004), 최형용(2005), 서태길(2009)에서는 '-치고'를 보조사로 보고 있다. 이렇듯 기존의 연구에서는 '-치고'를 다양하게 분석해왔다. 본 절에서는 '-치고'에 대한 기존의 분석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결국 '-치고'를 부사격 조사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함을 논할 것이다. 먼저 '-치고'가 '치-'의 활용형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보자.

채완(1998)에서는 '치다'는 주로 '치고, 치고서, 쳐 놓고'의 형태로 쓰여 "~에 달린 것으로 인정하거나 가정하다"와 같은 뜻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치고'를 조사로 본다면, 같은 의미로 쓰이는 '쳐 놓고'도 조사로 처리해야 하나,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치고'는 조사가 아니라 동사 '치다'의 활용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 ㄱ. 키 큰 사람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이 없다.
ㄴ. 키 큰 사람 쳐 놓고 싱겁지 않은 사람이 없다. (채완 1995:16)

(3) ㄱ. 한국인치고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ㄴ. 한국인 쳐 놓고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4) ㄱ. 덩치 큰 놈치고 뒷심 좋은 경우는 드물어.
ㄴ. 덩치 큰 놈 쳐 놓고 뒷심 좋은 경우는 드물어.

(5) ㄱ. 학생치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
ㄴ. 학생 쳐 놓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

(6) ㄱ.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
ㄴ. *겨울 날씨 쳐 놓고 따뜻하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위에 제시한 예문 중에서 (2~5ㄱ)은 '-치고$_2$'가 쓰인 예문이다. (2~5ㄴ)은 '-치고$_2$' 대신에 '쳐 놓고'가 쓰인 예문이다. (6ㄱ)은 '-치고$_1$'이 쓰인 예문이다. (6ㄴ)은 '-치고$_1$' 대신에 '쳐 놓고'가 쓰인 예문이다.

그런데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쳐 놓고'를 사용한 문장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사람들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채완(1998)에서는 '쳐 놓고'를 사용한 문장이 정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말뭉치 자료에서는 단 2회밖에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주변 한국어 화자들도 '쳐 놓고'를 사용한 문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필자는 한국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한국어 화자들에게 '-치고'가 쓰이는 문장을 '쳐 놓고'로 바꾸었을 때 옳은 문장이 되는지를 물어 본 것이다. 그 결과 '쳐 놓고'가 사용된 문장을 옳은 문장으로 판단하는 변수는 '연령'에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14] 설문조사에 대하여 10~40대의 사람들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50~70대에서는 '쳐 놓고'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15] 이러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쳐 놓고'는 일종의 '사어화'를 겪고 있는 셈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어떤 시기에 '쳐 놓고'와 '-치고$_2$'는 같은 의미로서 쓰였지만, 점차 '쳐 놓고'는 잘 안 쓰이게 되었고, '-치고'가 많이 쓰이게 된 것이다. 그것은 '-치고'가 문법화를 겪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치고$_2$'를 '쳐 놓고'로 대치할 수 있다고 하는 화자들도, '-치고$_1$'은 '쳐 놓고'로 대치할 수 없다고 한다는 사실이다. 즉 (7ㄴ)과 같은 문장은, 어떤 화자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완전히 비문법적인 문장인 것이다. '쳐 놓고'의 존재 때문에 '-치고'를 보조사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견해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한용운(2003)에서는 아래의 (7)과 같이 '치-' 뒤의 연결어미 '-고'뿐만 아니라 연결어미 '-면, -더라도'도 올 수 있다는 이유로 '-치고'를 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14) 성별, 출신 지역과 같은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5)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채완(1998)에서 '쳐 놓고'가 가능하다고 기술한 것도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7) 겨울 날씨 치{-고, -더(라도), -(으)면, *-어라, *-시-} (한용운 2003:177)

그런데 한용운(2003)은 '치고, 치면, 치더라도'의 선행절만 제시하였을 뿐 후행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후행절을 제시하지 않으면 문장이 문법적인 문장인지 비문법적인 문장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 (8)에서 후행절까지 제시한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8) ㄱ.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
ㄱ'. *겨울 날씨를 치고 따뜻하다.
ㄱ''. *겨울 날씨로 치고 따뜻하다.
ㄴ. *겨울 날씨치면 따뜻하다.
ㄴ'. 겨울 날씨로 치면 따뜻하다.
ㄷ. *겨울 날씨치더라도 따뜻하다.
ㄷ'. 겨울 날씨라고 치더라도 따뜻하다.

예문 (8)은 '치고, 치면, 치더라도'의 후행절까지 다 갖추어진 예문들이다. (8ㄱ)은 체언 뒤에 바로 '-치고'가 연결된 예문으로 매우 자연스럽다. (8ㄴ, 8ㄷ)은 체언 뒤에 각각 '치면'과 '치더라도'가 바로 연결된 예문인데, 모두 비문이다. 반면에 (8ㄱ', 8ㄱ'')은 명사구와 '치고' 사이에 각각 조사 '-를'과 '-로'를 삽입시킨 문장이다. 이 두 문장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명사구와 '치고' 사이에 조사를 삽입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치고'는 '치다'의 활용형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로 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8ㄴ')은 명사구와 '치면' 사이에 조사 '-로'를 삽입시킨 문장으로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때 '치다'는 '어떤 기준으로 삼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이 문장은 '겨울 날씨를 기준으로 삼을 때 따뜻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8ㄷ')은 명사구와 '치더라도' 사이에 인용표지 '라고'를 삽입시킨 예문이다. 이 문장은 인지동사로서의 '치다'의 구문이다. 위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면 명사구와 '치고' 사이에는 조사를 삽입시킬 수 없고 명사구와 '치면'과 '치더라도' 사이에 조사 '-로'나 인용표지 '-라고'가 와야 문법적인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치고'는 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치면'이나 '치더라도'는 일반 동사 '치다'의 활용형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한용운(2003)의 '치-' 뒤에 '-고'뿐만 아니라 연결어미 '-면, -더라도'도 올 수 있기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때문에 '-치고'를 조사로 볼 수 없다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으로 '-치고'는 조사로 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논의하였다. 다음에 살펴봐야 할 문제는 '-치고'가 어떤 조사에 속하느냐의 문제다. 한국어의 조사는 주로 격을 나타내 주는 격조사와 의미를 담당하는 보조사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표준》, 《연세》, 《고려》, 최형용(2005), 서태길(2009)에서는 모두 '-치고'를 보조사로 본 바 있다.

임홍빈·장소원(1995)에 따르면 보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특성이 있다.

① 어느 일정한 격을 담당하지 않는다.
② 명사 뒤에 뿐만 아니라 부사나 어미 뒤에도 결합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보조사의 두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치고'가 보조사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자. 우선 예문을 통하여 보조사 '-도'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9) ㄱ. 영희도 내 친구다.
ㄴ. 나는 영희도 좋아한다.
ㄷ. 이 그림 영희도 하나 주어야겠다.

위의 예문들은 임홍빈·장소원(1995:154)에서 다루어진 예문들이다. (9ㄱ)의 '-도'는 주어 자리, (9ㄴ)의 '-도'는 목적어 자리, (9ㄷ)의 '-도'는 부사어 자리에 쓰인다. 이와 같은 '-도'는 전형적인 보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치고'가 쓰일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0) ㄱ. (오늘 날씨는)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
ㄴ. *철수는 매운 음식치고 잘 먹는다.
ㄷ. 한국인치고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ㄹ.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10ㄱ)의 '겨울 날씨치고'는 표면적으로 보면 주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앞의 주어성분이 생략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겨울 날씨치고'는 문장의 부사어 자리에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쓰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0ㄴ)은 '-치고'가 '음식'과 결합하여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예문이다. 그러나 이 문장은 비문이기 때문에 '-치고'는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ㄷ)의 서술어인 '없다'는 논항을 하나만 필요로 하는 동사이므로 '사람'이 주어 자리에 나타나면 정상적인 문장이 될 수 있다. (10ㄹ)과 같이 '사람치고'라는 성분을 생략해도 문법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사람치고'는 역시 부사어 자리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예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고'는 선행하는 명사구와 같이 한 문장의 부사어 자리에만 나타날 수 있다. 다른 보조사처럼 여러 가지 격을 담당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치고'의 특성은 보조사의 첫 번째 판단기준에 어긋나므로 '-치고'를 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보조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은 체언 뒤에 뿐만 아니라 부사나 어미 뒤에도 결합되는지 이다. 그러나 '치고'는 체언 뒤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보조사로 볼 수 없다.

그런데 'NP치고'는 한 문장에서 늘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다음에 있는 예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1) ㄱ. (오늘 날씨는)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
ㄴ. 한국인치고 김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11ㄱ)은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의 의미를 지닌 '-치고$_1$'가 쓰이는 문장이다. 서술어 '따뜻하다'는 논항을 하나만 요구하기 때문에 '오늘 날씨'라는 주어만 있어도 문법적인 문장이 될 수 있다. '겨울 날씨치고'는 문장의 부사어로 쓰인다. (11ㄴ)은 '예외 없이 전체 다'의 의미를 지닌 '-치고$_2$'가 쓰이는 문장이다. 서술어 '없다'도 역시 논항을 하나만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주어만 있어도 문법적인 문장이 될 수 있다. '한국인치고' 역시 문장 내에서 부사어로 기능한다. 이렇게 보면 '-치고'는 한 문장의 부사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치고'를 부사격조사로 볼 것이다.

이상에서 '-치고'의 문법범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치고'의 형태·통사·의미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3. '-치고'의 형태적 특성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앞에서 '-치고'의 문법범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치고'의 형태적 특성을 보기로 한다. '-치고'의 부사격조사로서의 형태적 특성은 주로 다른 조사와의 결합양상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치고'는 조사 '-는', '-야', '-서'와 결합하여 '치고는, 치고야, 치고서, 치고서는, 치고서야'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부사격조사 '-치고'가 조사 '-는, -야, -서'와 어울려 결합하는 양상은 부사격조사 '-치고'의 의미와 조사 '-는, -야, -서'의 의미 기능과 관련이 있다. '-치고'가 다른 조사와 결합하여 형성된 조사들의 의미와 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희자·이종희 1998: 291-294).

<표5>

조사	의미	예
치고는	(기준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면'의 뜻을 나타냄.	갓난아기치고는 머리가 제법 많네요./ 쉰다섯의 나이치고는 아직도 꼬장꼬장한 박 초시가 빙긋 웃어 댔다.
치고야	(기준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면'의 뜻을 나타냄.	니 솜씨치고야 이만하면 맛있는 거지./ 봄날씨치고야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래?
치고서	①'예외 없이 모두'의 뜻을 나타냄. ②그러함을 인정한다 해도 어떠한 정도가 기대치보다 더함을 나타냄.	① 생의 무의미성을 극복한 사람치고서 그가 왜 사는가 하는 의미를 묻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② 민요시치고서 너무 다듬어져 있다고는 할 수 있어도, 민요 취향을 버리고 다른 길로 들어서지는 않았다.
치고서는	(기준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면'의 뜻을 나타냄.	철저한 유신론을 가지고 신의 존재와 신의 섭리를 확신하는 특징을 가졌는데 인도 철학파치고서는 특수한 학파라고 할 만하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치고서야	(기준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면'의 뜻을 나타냄.	아이치고서야 꽤 똑똑한 편이지.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고'는 뒤에 조사 '-야, -는, -서'가 결합하여 '-치고야, -치고는, -치고서' 등으로 쓰이기도 하고, 조사 '-치고서' 뒤에 다시 조사 '-야, -는'이 결합하여 '-치고서야, 치고서는'으로 쓰일 수도 있다. 조사 '-야', '-는'과 잘 결합하는 '-치고'는 '$치고_1$'이며, 조사 '-서'와 잘 결합할 수 있는 '-치고'는 '$-치고_2$'이다. 조사 '-야, -는'이 '$-치고_1$'과 잘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조사 '-야, -는'의 의미 기능 특성이 '$-치고_1$'의 의미 기능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조사 '-서'가 '$-치고_2$'와 잘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조사 '-서'의 의미 기능 특성이 '-$치고_2$'의 의미 기능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보조사 '-는'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치고_1$'은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의 의미를 지닌다. 한 집합 안에 있는 어떤 개체를 이 집합에 속하는 다른 부분이나 다른 개체와 비교하여 남다른 특성을 나타낼 때 '$-치고_1$'이 사용된다. 그 일부분이나 어떤 개체의 특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속하는 집합의 다른 부분과의 대조 관계를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대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는'[16)]이 '$-치고_1$'과 잘 어울려 쓰인다. 'NP는'의 구성에서 뒤에 기술되는 속성은 'NP'의 속성인 반면에 'NP치고는' 구성에서 뒤에 기술되는 속성은 'NP'의 속성이 아니고 NP라는 집합 안의 일부분이나 어떤 개체 하나의 속성이다. 다음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2) ㄱ. 철수는 잘 먹는다.
ㄴ. (철수) 어린이치고는 잘 먹는다.

위의 예문 (12ㄱ, 12ㄴ)은 각각 보조사 '-는'을 체언 뒤에 결합시킨 일반 용법과 조사 '-치고' 뒤에 붙은 용법의 예문이다. (12ㄱ)은 보조사 '-는'을 '철수' 뒤에 결합시

16)채완(1986)에 따르면 '-는'이 문두에서라도 특별히 강조되어 발음되거나, 혹은 문장 중간에 쓰이거나 또는 부사나 용언의 활용형에 연결되면 '-는'이 붙은 요소가 어떤 다른 요소와 대조됨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켜 철수가 다른 사람보다 잘 먹는다는 속성을 지님을 나타낸다. (12ㄴ)은 보조사 '-는'을 조사 '어린이치고' 뒤에 붙여서 어린이라는 집합에 속한 철수는 다른 어린이에 비해 잘 먹는다는 속성을 드러낸다.

洪思滿(1974), 채완(1986), 金映利(1988) 등에서는 조사 '-는'과 '-야'가 '대조'라는 공통되는 기능을 가지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조사 '-야'와 '-는'은 서로 유사하기도 하지만 '-는'보다는 '-야'가 화자의 주관적 요소를 나타내는 힘이 강하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능이 비슷한 특수조사 '-야'가 '-치고$_1$'과 어울려 쓰인 이유 역시 위에서 보인 '-는'이 '-치고$_1$'과 어울려 쓰인 이유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13) ㄱ. 어린애 솜씨치고야 이만하면 맛있는 거지. (이희자·이종희 1998)
ㄴ. 중고책치고야 이 정도면 정말 깨끗한 편이지.

위의 예문 (13)는 NP 뒤에 '-치고야'를 쓴 예문이다. (13ㄱ)은 이희자·이종희(1998)에 제시한 예문이다. 어떤 어린애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 나서 하는 말이다. 화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어린애는 음식을 잘 못 만든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어떤 어린애가 만든 음식이 의외로 맛있는 경우, 화자의 "어린애는 음식을 잘 못 만든다"는 기존의 인식과 화자가 말하는 어린애의 솜씨는 대조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 '-야'가 '-치고'와 어울려 쓰일 수 있다. (13ㄴ)은 화자가 중고책을 사고 나서 책이 깨끗한 것을 보고 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중고책이라면 보통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화자가 산 중고책의 상태는 '중고책이 더럽다'는 화자의 기존의 인식과 대조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 '-야'가 '-치고'와 어울려 쓰일 수 있다.

'그 전체가 예외 없이'의 의미를 뜻하는 '-치고$_2$' 뒤에는 조사 '-서'가 잘 결합한다. 최현배(1983)에서는 '-치고'와 '-치고서'를 조사 '-(으)로'와 '-(으)로서'처럼 감목자리 토(資格格助詞)로 간주하였다. 의미상으로 보면 '-치고, -치고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 '-(으)로, -(으)로서'와 동일하다. 안명철(1985), 박호관(2008) 등에서는 '움직임의 방향이나 경로', '변화의 결과', '재료나 원료', '수단이나 도구', '방법이나 방식', '원인이나 이유', '신분이나 자격', '시간'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 뒤에 조사 '-서'를 붙이면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의 의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미가 확실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치고' 뒤에 '-서'가 붙으면 특별한 의미 변화는 없이 단순히 강조하는 느낌이 더해진다. 이런 점에서 보면 '-치고' 뒤에 붙은 '-서'의 기능은 '-(으)로' 뒤에 붙은 '-서'의 기능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치고' 뒤에 붙을 수 있는 '-서'는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치고'는 일반 동사 '치-' 뒤에 연결어미 '-고'가 결합하여 문법화된 것이다. 그리고 연결어미 '-고' 뒤에 다시 '-서'가 붙은 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의 연구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연결어미 '-고' 뒤에 다시 '-서'가 결합되어도 큰 의미 변화는 없으며, 단지 강조하는 기능만 추가된다. 이렇게 보면 '-치고'와 '-치고서'의 관계는 연결어미 '-고'와 '-고서'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런 면에서 '-치고'는 아직 문법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치고서'의 용법은 '-치고$_2$'의 용법과 똑같다. '-치고서'는 '-치고$_2$'와 마찬가지로 서술어부분에 '희소하다'나 '없다'를 뜻하는 표현이 나와야 한다.[17] 다음 예문을 통하여 '-치고서'의 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14) ㄱ. 우리 학교 학생치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ㄱ'. 우리 학교 학생치고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ㄴ. 우리 학교 학생으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ㄴ'. 우리 학교 학생으로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15) ㄱ. 술치고서 이렇게 나쁜 것은 처음 보겠네.
ㄴ. 민요시치고서 너무 다듬어져 있다고는 할 수 있어도, 민요 취향을 버리고 다른 길로 들어서지는 않았다.

예문 (14ㄱ', 14ㄴ')에 있는 '-치고서'의 용법은 본고 언급하는 '-치고$_2$'의 용법과 같다. '-치고$_2$'와 비슷한 용법 외에 '-치고서'는 (15)과 같이 다른 의미와 용법도 지닌다. 이때는 '치고서'는 '그러함을 인정해도 어떠한 정도가 기대치보다 더함'의 의미를 나타낸다. 뒤의 서술어도 굳이 부정을 뜻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 (15ㄱ)은 화자의 인식에는 술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술을 먹고 나서 화자가 생각한 것과 달리 술이 너무 나쁠 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 뒤에 시간 부사 '처음'과 호응하여 화자가 술에 대해 가진 인식과 대조가 되며, '나쁜 것은' 처음 본다는 것은 나쁘다는 정

17) 이에 대해 4.4.2.2.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도가 강하다는 의미다. (15ㄴ)은 화자의 인식상으로는 일반적으로 민요시는 다듬어지지 않은 특성을 가지는데 지금 보는 민요시는 화자가 기대한 것보다 다듬어진 상태이다. 정도 부사 '너무'와 호응이 되어 기대치보다 더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15ㄱ)과 (15ㄴ)의 '-치고서'의 용법은 '-치고$_1$'의 용법과 가깝다.

4.4. '-치고'의 통사적인 특성

전술하였듯이 '-치고'는 통사·의미의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으며, 본고는 이를 각각 '-치고$_1$'과 '-치고$_2$'로 나누어 보기로 했다. '-치고$_1$'과 '-치고$_2$'의 통사적 특성을 보기 전에 우선 '-치고$_1$'과 '-치고$_2$'의 용법과 통사·의미적인 차이점을 알아볼 것이다. '-치고$_1$'과 '-치고$_2$'의 용법은 아래 (16), (17)의 예문에서 살필 수 있다.

(16) ㄱ.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
ㄴ. 서양 사람치고 키가 작다.
ㄷ. 어린애 솜씨치고 맛있어.

(17) ㄱ. 한국인치고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ㄴ. 사람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ㄷ. 요즘 20대치고 '단골집' 하나 없는 사람 있을까.
ㄹ. 혼자서 술집을 찾는 사람치고 기분이 유쾌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편이거든요.
ㅁ. 사람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 있으랴 싶다.
ㅂ.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치고 잔병치레 하는 사람 봤어?
ㅅ. 인사 잘하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 못 봤어.

(16)은 '-치고$_1$'의 용법이고, (17)은 '-치고$_2$'의 용법이다. '-치고$_1$'과 '-치고$_2$' 간에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후행요소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 'NP치고$_1$'의 후행요소로는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통 NP의 속성과 반대된 속성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쓰인다. 이와 달리 'NP치고$_2$'의 후행요소에는 NP에 속하는 구성원 중에서 어떤 속성이 '존재하지 않다'의 의미를 뜻하는 표현이 나타나야 한다. 이에 대해 자세한 논의는 뒤에 후술할 것이다.

우선은 '-치고$_1$'과 '-치고$_2$'간의 통사적인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표현과의 교체가 가능한지의 여보와 교체가 가능한 경우 그 뜻이 보존되는지 등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에서는 '-라면', '~요량하면(요량하고는)', '-(으)로서,' '~중에서'의 네 가지 표현과 '-치고$_1$', '-치고$_2$'가 교체되는지의 여부를 주로 논할 것이다.

(18) ㄱ.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
ㄱ'. #겨울 날씨라면 따뜻하다.
ㄴ. 서양 사람치고 키가 작다.
ㄴ'. #서양 사람이라면 키가 작다.

(18ㄱ, 18ㄴ)은 '-치고$_1$'이 쓰인 예문이고, (18ㄱ', 18ㄴ')은 '-치고$_1$'이 '-라면'으로 대치된 예문이다. (18ㄱ)의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는 '겨울 날씨' 뒤에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치고$_1$'이 결합되어 '겨울 날씨 중에서 예외적으로 따뜻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문장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정상적이다. 그러나 (18ㄱ')처럼 '-치고' 대신에 '-라면'을 쓰면 '겨울일 때 날씨가 따뜻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데, 겨울 날씨가 춥다는 사실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의미상 이상하다. (18ㄴ)의 '서양 사람치고 키가 작다'는 '서양 사람' 뒤에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치고$_1$'이 결합되어 '서양 사람 중에 예외적으로 키가 작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사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문장이다. (18ㄴ')에서와 같이 '-치고' 대신에 '-라면'을 쓰면 '서양 사람이 모두 키가 작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양 사람들은 키가 크다는 사실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의미상 이상하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치고$_1$' 대신에 '-라면'을 쓰면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충돌되기 때문에 의미상 이상하다. 그러므로 '-치고$_1$' 대신에 '-라면'을 쓸 수가 없다.

(19) ㄱ. 한국인치고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ㄱ'. 한국인이라면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ㄴ. 사람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ㄴ'. 사람이라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19ㄱ, 19ㄴ)은 '-치고$_2$'가 쓰인 문장이다. (19ㄱ', 19ㄴ')은 '-치고$_2$'가 '-라면'으로 대치된 문장이다. (19ㄱ)은 '한국인' 뒤에 '그 전체가 예외 없이'의 의미를 지닌 '-치고$_2$'가 결합하여 '한국인 중에서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치고$_2$' 대신에 '-라면'을 쓰면 한국인이라는 조건만 갖추면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치고$_2$'와 '-라면'은 서로 교체해도 큰 의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ㄴ)의 '사람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는 '사람' 뒤에 '그 전체가 예외 없이'의 의미를 지닌 '-치고$_2$'가 결합하여 '사람 중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치고$_2$' 대신에 '-라면'을 쓰면 사람이라는 조건만 갖추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19ㄴ)과 (19ㄴ')의 두 문장에서는 '-치고$_2$'와 '-라면'을 서로 교체해도 큰 의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치고$_2$'와 '-라면'은 서로 교체할 수 있다.

(18)와 (19)의 예문을 통하여 '-치고$_1$'은 '-라면'과 교체할 수 없는 반면에 '-치고$_2$'는 '-라면'과 교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치고$_1$'과 '-치고$_2$'가 '-(으)로서'와 교체가 가능한지를 보도록 하겠다.

(20) ㄱ. 겨울날씨치고 따뜻하다.
ㄱ'. $^?$겨울날씨로서 따뜻하다.
ㄴ. 서양 사람치고 키가 작다.
ㄴ'. $^?$서양 사람으로서 키가 작다.

(20ㄱ, 20ㄴ)은 '-치고$_1$'이 쓰인 문장이다. (20ㄱ', 20ㄴ')은 (20ㄱ, 20ㄴ)의 '-치고$_1$'을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 '-(으)로서'로 대치한 예문이다. (20ㄱ)은 '겨울날씨 중에서 예외적으로 따뜻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20ㄱ')에서와 같이 '겨울 날씨'뒤에 조사 '-(으)로서'를 붙이면 '겨울 날씨가 따뜻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겨울 날씨가 춥다'라는 일반적인 사실과 어긋나서 의미상 이상하다. (20ㄴ)은 '서양 사람 중에서 예외적으로 키가 작다'의 의미를 나타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내나, (20ㄴ')에서처럼 '서양 사람' 뒤에 조사 '-(으)로서'가 붙으면 '서양 사람이 키가 작다'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것 역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양 사람이 키가 크다'라는 관념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의미상 이상하다. 그러므로 '-치고$_1$'은 조사 '-(으)로서'와 서로 대체할 수 없다.

다음은 '-치고$_2$' 대신 '-(으)로서'를 쓰는 것이 가능한지를 볼 것이다.

(21) ㄱ. 한국인치고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ㄱ'. 한국인으로서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ㄴ. 사람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ㄴ'. 사람으로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21ㄱ, 21ㄴ)은 '-치고$_2$'가 쓰인 문장이다. (21ㄱ', 21ㄴ')은 '-치고$_2$'를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 '-(으)로서'로 대치한 예문으로, 최현배(1983)[18]에서는 '-(으)로, -(으)로서, -치고, -치고서'를 모두 감목 자리 토(資格格助詞)로 인정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분류는 이 조사들이 일련이 동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치고$_2$'를 '(으)로서'로 대치해도 큰 의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과 (21)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치고$_1$'은 조사 '-(으)로서'로 대치할 수 없는 반면에 '-치고$_2$'는 조사 '-(으)로서'로 대치할 수 있다.

이번에는 '-치고$_1$'와 '-치고$_2$'가 '요량하면(요량하고는)과 대체 가능한지를 볼 것이다.

(22) ㄱ.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
ㄱ'. 겨울 날씨 요량하면(요량하고는) 따뜻하다.
ㄴ. 서양 사람치고 키가 작다.
ㄴ'. 서양 사람 요량하면(요량하고는) 키가 작다.

(22ㄱ, 22ㄴ)은 '-치고$_1$'이 쓰인 문장이다. (22ㄱ', 22ㄴ')은 '-치고$_1$'을 '요량하면/

18) 최현배(1983)에서 제시한 예문을 보면 뒤에 모두 부정을 뜻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최현배(1983)에서 다룬 '-치고'는 '-치고$_2$'에 해당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량하고는'으로 대체한 예문이다. (22ㄱ)은 지금 계절이 겨울인데 오늘 날씨를 겨울 날씨와 비교할 때 예외적으로 따뜻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2ㄱ')은 '-치고$_1$' 대신에 '헤아려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요량하면(요량하고는)'으로 대치하면 '오늘 날씨는 겨울날씨 기준으로 헤아리면 따뜻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치고$_1$'을 대신에 '요량하면(요량하고는)'을 쓸 수 있다. (22ㄴ) '서양 사람치고 키가 작다'는 어떤 키 작은 서양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을 일반 서양 사람과 비교할 때 (일반 서양 사람의 기준으로 헤아릴 때) 키가 작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2ㄴ')은 '헤아려 생각하다'의 의미를 지닌 '요량하면(요량하고는)'으로 대치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다. 위의 예문을 통해 '-치고$_1$'을 '요량하면(요량하고는)'으로 대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 '치고$_2$' 대신에 '요량하면(요량하고는)'의 쓰임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자.

(23) ㄱ. 한국인치고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ㄱ'.*한국인 요량하면(요량하고는)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ㄴ. 사람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ㄴ' *사람 요량하면(요량하고는) 돈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23ㄱ, 23ㄴ)은 '-치고$_2$'가 쓰인 문장이다. (23ㄱ', 23ㄴ')은 '-치고$_2$' 대신에 '요량하면(요량하고는)'이 쓰인 문장이다. (23ㄱ)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치고$_2$'는 '자격이나 조건'을 나타낸다. '기준'을 나타내지 못해서 '헤아려 생각하다'의 의미를 지닌 '요량하면(요량하고는)'으로 대치할 수 없다. (23ㄴ)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치고$_2$'는 '헤아려 생각하다'의 의미를 지닌 '요량하면(요량하고는)으로 대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치고$_1$'과 '-치고$_2$'를 '~중에서'로 대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4) ㄱ.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
ㄱ'. *겨울 날씨 중에서 따뜻하다.
ㄱ''. 겨울 날씨 중에서 예외적으로 따뜻하다.
ㄴ. 사람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다.
ㄴ'. 사람 중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24ㄱ)은 '-치고$_1$'이 쓰인 예문이다. (24ㄱ')은 '-치고$_1$' 대신에 '~중에서'가 쓰인 문장이다. (24ㄱ')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24ㄱ'')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문장이다. (24ㄴ)은 '-치고$_2$'가 쓰인 예문이다. (24ㄴ')은 '-치고$_2$' 대신에 '~중에서'가 쓰인 문장으로 그 의미가 (24ㄴ)과 큰 차이가 없다 . 이와 같이 '-치고$_1$'은 '~중에서'로 대치할 수 없는 반면에 '-치고$_2$'는 '~중에서'로 대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치고$_1$'과 '-치고$_2$'의 차이는 외국어로 번역을 할 때에도 선명히 드러난다. '-치고$_1$' 구문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계산하다'를 의미하는 '算'이 들어갈 수 있고 '-치고$_2$' 구문을 번역할 때에는 '算'이 들어갈 수 없다는 차이가 그것이다.

(25) ㄱ.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
ㄱ'. 冬天天气算暖和的了。
ㄴ. 사람치고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ㄴ'. 没有不喜欢钱的人。/ *没有算不喜欢钱的人。

(25ㄱ')은 (25ㄱ)의 '-치고$_1$' 구문의 중국어 번역문으로, '算(suàn)'이 들어가야 정확히 번역이 된다. 반면 (25ㄴ')에서와 같이 '-치고$_2$'를 번역하는 경우 '算'이 들어가면 올바르지 못한 문장이 된다.

이상에서 논한 '-치고$_1$', '-치고$_2$'가 다른 어휘표현과 대치되어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6>과 같다.

<표6>

조사	-라면	-으로서	요량하면	-중에서	算
-치고$_1$	X	X	○	X	○
-치고$_2$	○	○	X	○	X

○: 대치 가능, X: 대치 불가능

지금까지 '-치고$_1$'과 '-치고$_2$'의 통사적인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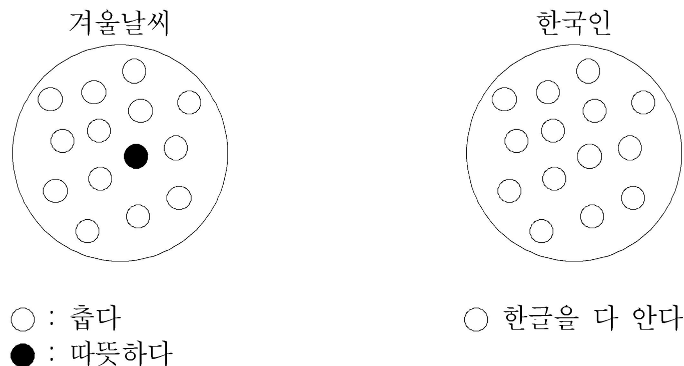
도 '-치고$_1$'과 '-치고$_2$'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다음에서 예문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26) ㄱ.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
ㄴ. 사람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26ㄱ)은 '어떤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 중에서 예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의 의미를 형성하는 '-치고$_1$' 구문이고 (26ㄴ)은 '어떤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지 않는 구성원이 없다'의 의미를 형성하는 '-치고$_2$' 구문이다. (26ㄱ)은 '겨울 날씨라는 범주에 속하는 겨울 날씨 중에서 예외적으로 따뜻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26ㄴ)은 '사람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치고$_1$' 구문은 문장은 어떤 범주 안의 한 구성원이나 구성원의 일부분이 다른 구성원과 달리 예외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치고$_2$' 구문은 어떤 범주 안에 어떤 특성을 지니지 않는 구성원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둘 사이의 차이는 다음의 도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표7>



'-치고$_1$'은 '한 집합에 속하는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예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의 구문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집합의 일부분이나 한 개체가 주어로서 문장 안에 나타나도 되고, 생략되어도 된다. 반면 '-치고$_2$'는 '한 집합에 속하는 구성원 중에서 어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떤 특성을 가지지 않는 구성원이 없다'의 구문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집합의 일부분이나 한 개체가 문장 안에 나타날 수 없다. 다음의 예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7) ㄱ.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
ㄱ'. 오늘 날씨는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
ㄴ. 외국인치고 매너가 괜찮은 것 같아.
ㄴ'. 이 사람은 외국인치고 매너가 괜찮은 것 같아.

(28) ㄱ. 겨울 날씨치고 따뜻한 날씨가 없다.
ㄴ. *오늘은 겨울날씨치고 따뜻한 날씨가 없다.

예문 (27ㄱ, 27ㄴ)은 '-치고$_1$'이 쓰인 문장이다. (27ㄱ')은 '-치고$_1$'이 쓰인 문장 앞에 '겨울 날씨'의 집합에 속하는 '오늘 날씨'가 추가된 문장이다. (27ㄴ')은 문장 앞에 '외국인'의 집합에 속하는 '이 사람'이 추가된 문장이다. (27ㄱ', 27ㄴ')은 주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27ㄱ, 27ㄴ)보다 뜻이 오히려 더 명확하다.

(28ㄱ)은 '-치고$_2$'가 쓰인 문장이다. (28ㄴ)은 '-치고$_2$'가 쓰인 문장 앞에 겨울 날씨에 속하는 '오늘 날씨'가 추가된 문장이다. 그러나 (28ㄴ)은 비문이다.

4.4.1. '-치고$_1$' 의 통사적 특성

'-치고$_1$'의 통사적 특성은 '-치고$_1$' 구문의 선행요소의 특성, 후행요소의 특성 그리고 선후행 요소의 관계 등을 살피는 것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4.4.1.1. '-치고$_1$'의 선행요소의 특성

앞에서 언급했듯이 'NP치고$_1$'이 쓰인 구문은 NP라는 범위 안에 NP의 일반적인 속성과 달리 다른 속성을 지닌 구성원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NP치고$_1$' 구문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화자가 NP라는 범위의 속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29) ㄱ.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
ㄴ. 구두치고 편해.
ㄷ. 서양 사람치고 키가 작다.

(29ㄱ)은 화자가 겨울이 춥다는 속성을 인식하고 있을 때 발화가능하며, (29ㄴ)은 화자의 머릿속에서 구두가 불편하다는 속성을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29ㄷ)은 화자의 머릿속에서 서양 사람이 키가 크다는 속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다.

서태길(2009)에서는 술어 '치-'의 목적어는 의미 속성상 주체의 분명한 고정관념이나 가치평가가 들어 있는 대상이 온다고 하였는데 문법화한 보조사 '-치고'에서도 그 특성이 드러난다고 했다.[19] 이런 까닭에 속성을 알 수 없는 고유명사는 '-치고'의 선행어로 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다.

(30) ㄱ. *철수치고 오늘 얌전하다.
ㄴ. 매일 사고만 내는 철수치고 오늘은 얌전하다.

위의 예문 (30)은 서태길(2009)에서 다룬 예문이다. (30ㄱ)이 '철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서술이라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30ㄴ)에서처럼 '철수'의 속성을 정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NP치고$_1$'의 NP가 일반명사일 때 그 속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을 한정해줄 말이 필요해 진다.

(31) ㄱ. 첫눈치고는 너무 많은 눈이었다.

---

19) 서태길(2009:265)에서는 술어 '치다'의 목적어로는 의미 속성상 주체의 분명한 고정 관념이나 가치 평가가 들어 있는 대상이 온다고 했다.

ㄱ. 철수는 가짜 그림을 진짜라고 여기고 속아서 비싸게 샀다.
ㄴ. *철수는 가짜 그림을 진짜라고 치고 속아서 비싸게 샀다.

(ㄱ)에서 행위의 주체인 '철수'는 대상인 '가짜 그림'에 대해서 그 그림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림을 산 주체인 '철수'가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고 그 물건을 샀다는 것이 의미론적으로 적합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ㄴ)에서는 '철수'가 산 그림이 가짜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가짜로 이미 인지한 그림을 진짜로 속아서 산다는 것이 의미론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비문이 된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ㄴ. ?눈치고는 너무 많은 눈이었다.

(31ㄱ)은 '-치고는'의 선행명사 앞에 한정어 '첫'이 있는 예문이고, (31ㄴ)은 '-치고는'의 선행명사 앞에 아무 한정어가 없는 예문이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첫눈은 '조금밖에 안 내린다'의 속성을 지닌다면 '많이 내린다'는 첫눈의 예외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첫눈치고는 너무 많은 눈이었다.'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그러나 '첫눈'이 아닌 그냥 '눈'은 '조금밖에 안 내린다'의 속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눈치고는 너무 많은 눈이었다'는 조금 부자연스럽다.

4.4.1.2. '치고$_1$'의 후행 요소의 특성

'NP치고$_1$' 구문은 'NP라는 범위 안에 어떤 개체나 일부분이 'NP'라는 범위의 속성과 다른 속성을 지닌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치고$_1$'의 후행 요소로는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 나와야 한다. 서태길(2009)에서는 'NP치고+V' 구문에서 V는 사물의 속성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동사는 올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32) ㄱ. 겨울날씨치고 따뜻하다.
ㄴ. 구두치고 편하다.
ㄷ. *어린이치고 먹는다.

위의 예시를 통하여 'NP치고$_1$'의 후행요소로는 '따뜻하다, 편하다' 등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올 수 있는 반면에 '먹다'처럼 속성을 나타내줄 수 없는 동사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태길(2009)에서는 동사가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면 'NP치고$_1$'의 후행요소로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33) ㄱ. *어린이치고 달린다.
ㄴ. 어린이치고 잘 달린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위의 예문 (33)은 서태길(2009)에서 다룬 예문이다. (33ㄱ)은 동작동사 '달리다'가 속성을 나타낼 수 없어 비문이 되는 반면에 (33ㄴ)은 부사 '잘'의 수식을 받아서 속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러나 동사자체에 정도성의 의미 성분이 들어 있으면 정도 부사가 없어도 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34) 그는 한국인치고 소식한다.

(34)의 동사 '소식하다' 자체는 음식을 적게 먹는다는 정도성의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에 부사의 수식이 없어도 문법적인 문장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NP치고$_1$'의 후행요소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동사 등 세 가지가 있다고 하겠다.

위에서 'NP치고$_1$'의 후행요소로 쓰일 수 있는 서술어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술어가 'NP+이다'일 경우에는 NP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필요하다. 위에서 정도성의 의미성분이 들어 있는 동사가 정도부사의 수식이 없어도 문법적인 문장이 될 수 있다고 논의한 것처럼 명사 자체가 속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관형어가 없어도 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5) ㄱ. 젊은이치고 훌륭한 사람이다.
ㄱ'. *젊은이치고 사람이다.
ㄴ. 첫 눈치고 많은 눈이었다.
ㄴ'. *첫 눈치고 눈이었다.

(36) 철수는 많이 공부한 사람치고는 멍청이이다.

(35ㄱ, 35ㄴ)은 'NP+이다'를 수식하는 관형어 '훌륭한, 많은'이 있기 때문에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반면에 (35ㄱ', 35ㄴ')은 'NP+이다' 앞에 아무 수식어가 없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35ㄱ)에서 화자는 젊은이는 일반적으로 훌륭하기 어렵다고 생각하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나 어떤 젊은이가 자신의 기대와 상반되게 훌륭한 일을 한 경우,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게 된다. (35ㄴ)에서 화자는 첫 눈은 당연히 조금밖에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눈은 많이 내리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나, 첫눈이 많이 온 경우에는 '-치고$_1$' 구문을 사용하여 화자의 기대와 반대되는 '첫눈인데 예외적으로 많은 눈'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예문 (35ㄱ, 35ㄴ)과 달리 예문 (36)은 관형어가 없어도 문법적이다. 명사 자체가 사람이 똑똑하지 않다는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하다.

4.4.1.3. '치고$_1$'의 선후행 요소의 의미 관계

'NP치고$_1$'은 'NP에 속하는 구성원으로서는 예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의 구문에서 쓰인다. NP의 속성은 보통 화자의 머릿속에서 인식된 것이다. 예외적인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화자 머릿속에서 인식한 NP의 속성이 후행 요소가 설명하는 속성과 서로 반대되어야 한다. 서태길(2009)에서도 'NP치고+V' 구문에서 NP는 V가 드러내는 성질과 반대되는 속성을 가진 대상이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37) ㄱ. (오늘 날씨는)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
ㄱ'. *(오늘 날씨는) 겨울 날씨치고 춥다.
ㄴ. 화장실치고 깨끗하다.
ㄴ'. *화장실치고 더럽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겨울 날씨는 일반적으로 춥다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겨울 날씨치고'의 서술어로는 겨울 날씨의 속성과 다른 속성, 즉 '따뜻하거나 춥지 않다' 등의 속성이 나와야 문법적인 문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37ㄱ)의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는 '겨울 날씨에서 예외적으로 따뜻하다'의 의미를 지녀서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와 반대로 (37ㄱ')과 같이 후행 술어가 '춥다'일 때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37ㄴ)도 마찬가지이다. 화자의 인식에는 '화장실'은 더럽다는 속성을 가진다. '-치고$_1$' 구문이 쓰일 때 화장실이 더럽다는 속성과 상반된 말이 후행요소로 와야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37ㄴ)은 문장의 후행요소 '깨끗하다'가 화장실의 더러운 속성과 상반되기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때문에 정문이 된다. 이와 반대로 (37ㄴ')은 비문이 된다.

4.4.2. '-치고$_2$' 의 통사적 특성

'-치고$_2$'의 통사적 특성은 '-치고$_2$' 구문의 선행요소, 후행요소, 그리고 선후행요소의 특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4.4.2.1. '-치고$_2$'의 선행요소의 특성

'-치고$_2$'는 '-치고$_2$' 구문에서 '그 전체가 예외 없이'의 의미를 지닌다. 'NP치고$_2$' 구문은 'NP라는 범위 안에서 예외적인 구성원이 없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외적인 구성원이라는 것은 NP를 구성하는 다른 구성원의 속성과 다른 속성을 가지는 구성원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화자가 'NP치고$_2$'의 'NP'의 속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8) ㄱ. 한국인치고 김치를 못 먹는 사람이 없다.
ㄴ. 키가 큰 사람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이 없다.

위의 예문 (38)은 '-치고$_2$'가 사용된 예문들이다. (38ㄱ)과 같은 문장은 한국인은 김치를 잘 먹는다는 것을 화자가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화자가 머릿속에서 인식한 것은 '한국인들은 김치를 잘 먹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인식 속에서 '김치를 못 먹는 사람'은 예외적인 것이 된다. 뒤에 '없다'와 호응하여 '한국인들 중에서 예외적으로 김치를 못 먹는 사람이 없다' 나 '한국인들은 다 김치를 먹을 수 있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38ㄴ)은 키가 큰 사람이 싱겁다는 화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 상에서 '키가 큰 사람이 싱겁지 않다'는 것은 예외적이다. 따라서 뒤에 '없다'와 호응하여 키가 큰 사람이라는 범위 안에서 예외적인 것이 없음을 나타낸다. 즉, '키가 큰 사람 중에서 싱겁지 않은 사람이 없다'나 '키가 큰 사람들은 모두 싱겁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그런데 NP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 화자가 NP의 구성원이 갖는 일정한 특성을 추출해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NP의 범위를 좁혀주는 수식어가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다.

(39) ㄱ. 우리나라에서 현대사 공부하는 사람치고 그 작가의 책을 보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ㄴ. $^{?}$사람치고 그 작가의 책을 보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ㄷ. 학생치고 그 작가의 책을 보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39)은 '-치고$_2$'가 쓰인 구문이다. (39ㄱ)은 (39ㄴ)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현대사를 공부하는'이라는 한정어가 있다. (39ㄱ)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39ㄴ)은 다소 이상하다는 인상을 준다. (39ㄴ)이 이상한 이유는 문법적인 데에 있다기보다는 현실논리적인 데에 있다. 현실적으로 온 인류가 특정 작가의 책을 보는 상황이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다. (39ㄷ)의 경우는 '-치고' 앞에 (39ㄴ)의 사람이라는 범주보다는 좁은 '학생'이라는 범주가 온다. 만약 그 작가가 쓴 책이 정말로 학생들이 공부할 때 모두 봐야 할 정도로 유명하다면, (39ㄷ)처럼 NP의 범위를 좁혀주는 수식어가 없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4.4.2.2. '-치고$_2$'의 후행 요소의 특성

'-치고$_2$'는 '어떤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으로서 어떤 특성을 가지지 않는 구성원이 없다'의 의미를 지닌 구문에서 쓰이기 때문에, '-치고$_2$'의 후행 요소로는 '희소(稀少)'나 '존재하지 않는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 표현이나 문법 표현이 쓰여야 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그 통사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40) ㄱ. 한국인치고 김치를 못 먹는 사람이 없다.

ㄴ. 사람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ㄷ. 요즘 20대치고 '단골집' 하나 없는 사람 있을까.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ㄹ. 혼자서 술집을 찾는 사람치고 기분이 유쾌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편이거든요.

ㅁ. 뱃사람치고 헤프지 않은 사람 있으랴 싶다./ 있나 싶다./ 있는가 싶다.

ㅂ.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치고 잔병치레 하는 사람 봤어?

ㅅ. 인사 잘하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 못 봤어.

ㅇ. 덩치 큰 놈치고 뒷심 좋은 경우는 드물어.

'-치고$_2$' 구문들을 살펴보면 주로 '희소하다'나 '없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없다, 드물다, 못 봤어, 찾아보기 힘들다' 등 표현이나, '어디 있어?', '있을까?', '있으랴 싶다', '있으나 싶다', '있는가 싶다' 등의 표현들이 후행하여 쓰이고 있다. '-치고$_2$'와 어울려 쓰인 후행 술어들은 보통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표8>

유형	해당 표현
[유형1]	없다, 드물다, 흔하지 않다 등
[유형2]	못 봤다, 찾아보기 힘들다, 못 들어봤다 등
[유형3]	어디 있어? 있을까? 있나? 있겠어? 등
[유형4]	있으랴 싶다, 있나 싶다, 있는가 싶다 등
[유형5]	밖에 없다 등

각각의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1]은 '희소(稀少), 존재하지 않는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휘로는 '없다, 드물다, 흔하지 않다' 등이 있다.

(41) ㄱ. 한국인치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ㄴ. 한국인치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드물다.

ㄷ. 한국인치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흔하지 않다.

ㄹ. *한국인치고 한글을 다 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41ㄱ, 41ㄴ, 41ㄷ)의 '치고$_2$'는 '없다, 드물다, 흔하지 않다'의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 표현과 어울려 쓰이고 있다. (41ㄱ, 41ㄴ, 41ㄷ)은 '한국인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한국인들 중에서 한글을 모르는 한국인이 없다/드물다/흔하지 않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41ㄹ)은 의미상 (41ㄱ, 41ㄴ, 41ㄷ)과 비슷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 표현이 없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유형2]는 지각동사의 부정형일 경우이다. 지각동사의 부정형도 [유형1]과 마찬가지로 '희소(稀少), 존재하지 않는다'의 의미를 나타내며, 이 유형에 속하는 표현으로는 '못 봤어, 찾아보기 힘들다, 못 들어봤어' 등이 있다.

(42) ㄱ. 사람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을 못 봤어.
ㄴ. 혼자서 술집을 찾는 사람치고 기분이 유쾌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
ㄷ. 사람치고 돈을 싫어한다는 사람은 못 들어 봤어.

(42ㄱ)은 '-치고$_2$'가 '못 봤어'와 호응하여 쓰인 예문이고, (42ㄴ)은 '-치고$_2$'가 '찾아보기 힘들어'와 호응하여 쓰인 예문이다. (42ㄱ)은 '못 봤어'가 지각동사 '보다' 앞에 부정소 '못'이 오는 경우이고, (42ㄴ)은 동사 '찾아보-'뒤에 '-기 힘들다'를 취하여 쓰인 경우이다. '못 봤어'나 '찾아보기 힘들다' 등의 표현들은 화자가 느끼기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42ㄱ)은 '사람 중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42ㄴ)은 '혼자서 술집을 찾는 사람 중에서 기분이 유쾌한 사람이 없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유형3]은 수사의문문인 경우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수사의문문으로는 주로 '어디 있어?', '있을까?', '있나?', '있겠어?' 등이 있다. 이런 수사의문문도 '존재하지 않는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43) ㄱ. 사람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ㄴ. 사람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ㄷ. 사람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ㄹ. 사람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43)의 '-치고$_2$'는 후행요소인 '어디 있어?', '있을까?,' '있나?', '있겠어?' 등 수사의문문과 어울려 쓰이고 있는 예문이다. 표면상으로는 의문문인데 실질적으로는 '없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43)는 '사람 중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유형4]는 '있으랴 싶다, 있나 싶다, 있는가 싶다' 등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후행요소는 '없다' 등의 부정을 뜻하는 어휘가 없어도 '존재하지 않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44) ㄱ. 사람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랴 싶다.
ㄴ. 사람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싶다.
ㄷ. 사람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싶다.
ㄹ. *사람치고 돈을 다 좋아한다.

예문 (44)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치고$_2$'와 어울려 쓰이는 후행요소는 존재동사 "'있-'+의문형 종결어미(-랴, -나, -는가)+싶다[20]"의 유형이다. '싶다'를 결합시키지 않으면 [유형3]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사의문문 형태의 문장이어서 부정을 뜻하는 문장이 형성되며 '싶다'를 취하면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게 된다. 즉 (44ㄱ~ㄷ)은 화자가 '사람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추측하다(생각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며, '-치고$_2$'의 후행요소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긍정문 '모든 사람이 돈을 좋아한다.'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예문 (44ㄹ)처럼 '-치고$_2$' 구문에서 부정을 의미하는 후행요소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긍정문으로 바꾸면 비문이 된다.

[유형5]는 '-치고$_2$' 구문에 '~밖에 없다'가 후행요소로 사용되는 것이며, '희소(稀少)'의 의미를 나타낸다.

(45) ㄱ. 세계적인 문명국가치고 전통 왕궁이 이처럼 손상된 채로 있는 예도 하늘 아

20) 강흥구(2000), 호광수(2000), 안주호(2006) 등의 논의에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싶다'의 구문에 대해 논의하였다. '추측'을 나타내는 '싶다' 구문의 유형 중의 하나는 종결어미 뒤에 '싶다'를 결합시키는 경우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래 경복궁 하나밖에 없다.

ㄴ. *세계적인 문명국가치고 전통 왕궁이 이처럼 손상된 채로 있는 예도 하늘 아래 경복궁만 있다.

(45ㄱ)은 '-치고$_2$'가 '-밖에 없다'와 호응하여 쓰인 예문이다. (45ㄴ)은 후행술어 '-밖에 없다'를 동일한 의미를 갖는 '-만 있다'로 바꾼 예문인데, (45ㄱ)은 문법적인 문장인 반면에 (45ㄴ)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NP$_1$치고$_2$ NP$_2$밖에 없다'는 'NP$_2$가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을 인정하면서, NP$_2$를 제외한 NP$_1$에 속하는 다른 구성원들은 모두 그런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 구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45ㄱ)은 '세계 문명국가의 전통 왕궁 중에서 경복궁을 제외한 모든 전통 왕궁들은 손상된 채로 있지 않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4.4.2.3. '치고$_2$'의 선후행 요소의 의미관계

앞에서 언급했듯이 '치고$_1$'은 '어떤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들 중에서 예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에서 쓰이기 때문에 '-치고$_1$'의 선행 명사구가 지닌 특성이 후행요소가 나타난 특성과 서로 상반되어야만 정문이 된다. 한편 '-치고$_1$'과 달리 '-치고$_2$'는 '어떤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들 중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지 않는 구성원이 없다'의 의미를 나타는 구문에서 쓰이기 때문에 '-치고$_2$'의 선행 명사구가 지닌 특성은 후행요소가 나타난 특성과 통일되어야 한다.

(46) ㄱ. 한국인치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ㄴ. 사람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46ㄱ)은 화자가 한국인들 중에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함을 나타내고, (46ㄴ)은 화자가 사람들 중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뜻하다. 즉 'NP치고$_2$'는 화자가 인식한 NP의 특성이 후행요소에 나타난 특성과 통일되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5. 결론

지금까지 동사 '치-'와 조사 '-치고'의 문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도록 할 것이다.

'치-'의 형태론적 특징은 '치-'와 어미의 결합 양상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말뭉치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본 결과 '치-'와 잘 결합하는 어미(-고, -면, -자면, -어서)와 잘 결합하지 못하는 어미(-었-, -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치-'가 어떠한 연결어미와 결합하는지는 '치-'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치-'의 경험주는 항상 화자이기 때문에 주체높임어미 '-시'와 결합할 수 없다. 다만 경험주가 화자가 아닌 경우는 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할 수 있다. 또 '치-'는 발화시점과 인지시점이 동일하므로 선어말어미 '-었-'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간주하다, 생각하다'의 의미를 지닌 '치-'는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할 수 있다.

'치다'의 통사론적 특성은 '치-'의 논항 구조, '치-'가 자주 쓰인 문장 유형, 관용표현을 들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른 인지동사와 마찬가지로 '치-'도 3자리 논항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치-'의 의미에 따라 논항의 개수가 달라진다. '치-'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보다 청유문에서 많이 쓰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가정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ㄴ/는 셈 치다', '-다손 치더라도, -은 그렇다 치고', '-은 둘째 치고' 등 여러 관용표현이 형성된다.

본고에서는 '치-'에서 문법화된 '-치고'의 문법범주에 대해 다시 규명하였다. '-치고'는 명사구 뒤에만 쓰일 수 있으며, 'NP치고'는 문장성분 중에서 '부사어'만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사격조사라고 판단했다.

본고는 '-치고'가 두 가지 구문을 형성하기 때문에 '-치고'를 '-치고$_1$'과 '-치고$_2$'로 나누었다. '-치고$_1$'은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처럼 '어떤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으로서는 예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의 구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후행요소로는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부사가 나와야 한다. '-치고$_2$'는 '한국인치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처럼 '어떤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으로 어떤 특성을 지니지 않는 구성원이 없다'의 구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후행요소로는 '희소(稀少)나 존재하지 않다'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온다. 'NP치고$_1$' 구문의 후행 요소에 나타나는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속성은 화자가 기대한 NP의 속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일종의 반(反)기대표지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 머릿속에서 인식한 NP의 특성과 후행술어가 기술하는 특성은 서로 반대되어야 한다. 'NP치고$_2$'는 후행술어자리에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없다'가 반드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치고$_2$'는 일종의 부정극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치고'가 '치-' 뒤에 연결어미 '-고'를 취하여 문법화 과정을 거쳤다고 보았다. 이때의 '치고'는 다른 'V+고'의 문법화 과정과 달리 단순한 문장성분이나 조사의 생략을 통하여 실현된 것이 아니다. '-치고'의 의미는 '-로 치면'의 활용형의 의미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치고'의 문법화 과정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참고문헌

Ⅰ. 논저류

강흥구(2000), “보조동사 ‘싶다’, ‘보다’, ‘하다’의 통사·의미론적 특징”, 《한어문교육》 8,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77-100.

고영근(1989), 《國語形態論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동식(1990), “부정법”, 《國語硏究 어디까지 왔나》,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硏究會, 452-466.

金永旭(1994), “불완전 계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國語學》 24, 국어학회, 87-109.

金映利(1988). “國語 特殊助詞의 意味”, 《白鹿語文》 5, 백록어문학회, 121-139.

김영희(1998), “부정 극성어의 허가 양상”, 《한글》 240·241, 한글학회, 263-298.

남기심(1994), 《국어 연결어미의 쓰임: ‘-고, -어서, -니까, -다가’의 의미 통사적 특징》, 서광학술자료사.

박종갑(1986), “의문법 의미의 종류에 따른 의문문 유형의 意味기능”, 《韓民族文學》 13, 朝鮮民族語文學會, 397-419.

______(1987), “國語 疑問文의 意味機能 硏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진호(2003a), “한국어의 동사와 문법요소의 결합 양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______(2003b),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國語學》 41, 국어학회, 361-384.

______(2011),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 사회》 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25.

박호관(2008), “국어 명사구 결합형 조사 ‘-서’의 의미 기능”, 《우리말글》 42, 우리말글학회, 65-88.

배도용(2002), 《우리말 의미 확장 연구》, 한국문화사.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범금희(2002), "{어 가지고}와 관련된 문법화 현상에 대하여(2)", 《배달말》 30, 배달말학회, 23-40.
변정민(2002), "인지 동사의 구문 연구", 《새국어교육》 64, 한국국어교육학회, 67-92.
서정목(1987), 《국어 의문문 연구: 慶南方言과 中世國語의 WH-현상을 중심으로》, 塔出版社.
서정섭(1991), 《국어 양보문 연구》, 한신문화사.
서정수(1996), 《(현대)국어 문법론》, 한양대학교 출판원.
서태길(2009), "보조사 '말고', '치고'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45, 한국어학회, 255-274.
서태룡(1988), 《國語 活用語尾의 形態와 意味》, 塔出版社.
시정곤(1997a), "국어의 부정극어 허가조건", 《언어》 22, 한국언어학회, 471-497.
_____(1997b), "국어의 부정극어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19, 국어국문학회, 49-78.
안명철(1985), "補助助詞 '-서'의 意味", 《국어학》 14, 국어학회, 478-506.
안주호(2006), "현대국어 '싶다' 구문의 문법적 특징과 형성과정", 《한국어 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371-391.
양세욱(2005), "고전중국어의 조건과 화제", 《중국언어연구》 20, 한국중국언어학회, 69-88.
오규환(2007), "현대 국어 조사 결합형의 단어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_____(2008), " '같-'의 활용형의 문법화와 관련된 몇 문제", 《형태론》, 10-2, 박이정, 353-372.
이상복(1979), "동사 '말다'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12,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39.
이성하(2011), 《문법화의 이해》, 한국어문화사.
이상훈(2011), "중세국어 양보부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은경(1996),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學硏社.
이정애(1998), “가지고 의 문법화 과정”, 《언어》 23, 한국언어학회, 87-110.
이희자·이종희(1998), 《(사전식) 텍스트분석 국어 조사의 연구》, 한국문화사.
임유종(2005), 《수식언의 문법》, 경진문화사.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Ⅰ》,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분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국어학회, 119-154.
____ (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211-249.
_____(2011), “한국어의 문장유형과 용법”, 《국어학》 60, 국어학회, 323-359.
장광군(1999), 《한국어 연결어미의 표현론》, 月印.
장호종(2003), “ ‘말다’의 의미와 용법”, 《한국어학》 20, 한국어학회, 221-239.
전영철(1997), “한국어 총칭문의 유형”, 《언어학》 21, 한국언어학회, 289-303.
______(2004), “한국어의 복수성과 총칭성/한정성”, 《언어와 정보》 8, 한국언어정보학회, 27-45.
정순기·이기원(1984), 《사전편찬이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한용운(2003), 《언어 단위 변화와 조사화》, 한국문화사.
함병호(2012), 보조사 ‘나’와 ‘도’의 의외성, 형태론 집담회 발표문.
호광수(2000), “ ‘싶다’ 구성의 통사 의미적 특징과 연결소”, 《국어문학》 35, 국어문학회, 136-177.
洪思滿(1974), “助詞 ‘-는/은’과 ‘-도’의 意味機能 對比”, 《東洋文化硏究》 1, 慶北大學校 東洋文化硏究所, 109-129.
채숙희(2011),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구어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채완(1986), “特殊助詞”, 《국어생활》 5, 국어연구소, 91-101.
______(1993), “특수조사의 목록의 재검토”, 《국어학》 23, 국어학회, 69-92.
______(1995), “한국어 특수조사 연구의 한 반성”, 《조선학보》 154.
______(1998), “특수조사”, 《문법 연구와 자료 (上)》, 태학사, 115-138.
최현배(1946), 《우리말본》, 正音社.
최현배(1983), 《우리말본》, 正音社.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칼리나(2011), "현대 한국어 한자어 '別'의 의미와 문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Kurłowicz, Jerzy, 1975, *The Evolution of Grammatical Categories. Esquisses Linguistiques* Ⅱ. Munich: Fink.
Heine Bend, Urike Claudi, & Friederike Hunnemeyer, 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opper, Paul J.,& Elizabeth Closs Traugott, 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Ⅱ. 사전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편(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민수 외 편(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1992),《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이희승 편(2003), 《엣센스 국어대사전》, 제5판, 민중서림.
한글학회 편(2005), 《우리말 큰사전》, 글나래.

Ⅲ. 기타 자료

국립국어원,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http:// sejong.or.kr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中文摘要>

关于‘치－’和‘－치고’的研究

石慧梅

本论文的研究目的是考察动词 ‘치－’和助词 ‘－치고’的语法特征及两者之间的关系。本论文从形态和统辞两个方面考察了‘치－’的语法特征，同时从语法范畴以及固用句型两个方面考察了‘－치고’的语法特征。

综合各词典中‘치－’的含义，可大体概括出‘算’，‘标价’，‘以~基准衡量’，‘认定或假定’等四种意思。这四种意思是相互关联的。即，通过‘算’，‘标价’等具体意义的语义扩张，得出‘以~基准衡量’，‘认定或假定’等抽象意义。通过观察发现‘치－’的形态统辞特征也与其意义密切相关。‘치－’的形态特征是通过经常与其结合使用的语尾和不经常与其结合使用的语尾进行考察的。‘치－’的统辞特征是通过其句型结构，经常使用的句型，‘惯用句型’等进行考察的。‘치－’的不同意思具有不同的句型结构。与一般动词相比，‘치－’在共同文里使用的情况较多。而且具有‘假定’的意思的‘치－’，构成了‘作为~算~的了’，‘就算~’，‘就那样吧’，‘算次要的’等多种惯用句型。

在考察‘－치고’的语法特征之前，首先对‘－치고’的语法范畴进行了规范。由于‘－치고’不能出现在多种句子成分里，而只能用在名词短语后面，并且‘NP치고’在句子成分中只能充当状语，因此断定‘－치고’不是补助词而是格助词。‘－치고’的语法特征是通过‘－치고’所构成的两种固定句型来考察的。本论文把表示‘作为某一范畴的一员或一部分拥有某一特性’的固定句型中出现的‘－치고’标为‘－치고$_1$’。例如：‘（作为）冬天的天气，（今天）算暖和的了’。‘－치고$_1$’固定句型所描述的事物的特性与作者所期待的特性相反，所以‘－치고$_1$’可以看作‘反期待标志’之一。另外，我们把表示‘某一范畴的组成成员中没有不具有某一特性的’的固定句型中出现的‘－치고’标为‘－치고$_2$’。例如：‘韩国人中没有不认识韩国字的’。‘－치고$_2$’固定句型的后半部分必须与表示‘没有’或者‘稀少’等意思的词语连用，因此‘－치고$_2$’可看作是‘否定极性词语’之一。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치-’的活用型‘-치고’经过语法化这一过程，形成助词‘-치고’。无论是具有具体意义的‘치-’，还是具有抽象意义的‘치-’，都表示将某事物划入某一范围。助词‘-치고’所构成的两个固定句型，也是就某一范围内的事物特性而言的。由此可见，‘치-’与‘-치고’有着密切的联系。

关键词：치다, -치고, 助词化, 语法化, 副词格助词, 反期待标志, 否定极性词, 惯用句型

学号：2010-22696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